

를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였음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國憲紊亂에 해당하며 따라서 刑法 87條와 刑法 91條의 內亂罪에 해당하는 것인데 證人은 당시 國防長官으로서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 어떠한 報告를 받았습니까?

○證人 周永福 5月 20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吳景義委員 예. 5月 18日 20日과 5月 20日 國會에 軍人이 난입한 것은 國會의 戒嚴解除要求를 사전에 막으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維新憲法과 國軍의 政治的 中立性을 배제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 잘못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周永福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어서 죄송합니다마는...

○吳景義委員 아니 報告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證人 周永福 난입했다는 얘기를 들은 일도 없습니다.

○吳景義委員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證人 周永福 예. 없습니다.

○吳景義委員 報告를 받은 후에 어떠한 措置를 취했습니까? 한번도 안 받았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證人 周永福 전혀 모르겠습니다.

○吳景義委員 이 內亂罪 責任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證人 周永福 만일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指揮官이나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알진 모르진...

○李海瓚委員 法律的인 책임을 져야지 왜 도의적인 책임을 집니까?

○證人 周永福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은 전혀 저는 委員님으로부터 오늘 처음입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요? 처음 듣는다면 어제 李煥性씨도 처음 듣는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證人 周永福 그것은 사실입니다.

○吳景義委員 陸軍本部 戰敎司 戰關詳報에 의하면 5月 17日 19時 40分 2軍 忠正作戰指示 80-1號가 戰敎司에 下達되었읍니다. 이는 18

日 領時 1分 발효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非常戒嚴이 확대되기 전이고 國務會議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國務會議는 21時 42分부터 21時 50分까지 8分동안 진행되었읍니다.

이는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에서도 밝혀졌듯 이 光州地域을 무력으로 鎮壓하여 全斗煥씨가 政權을 탈취하고자 했던 변명할 수 없는 證據입니다. 이때는 5月 17日 24時 非常戒嚴의 全國擴大 이전이므로 엄연히 指揮體系는 國防長官을 통해서 戒嚴司令官에게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證人은 國防長官으로서 2軍 忠正作戰指示가 戰敎司에 하달된 사실을 報告받았습니까?

(文東煥委員長, 辛基夏幹事와 司會交代)

○證人 周永福 안 받았읍니다.

○吳景義委員 國防部 軍史研究室에서 本特委에 제출한 자료중에서 忠正作戰 詳報에 의하면 光州에 投入된 軍人들에게 준 보급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證人은 당시 投入된 병력이 TNT를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證人 周永福 TNT입니까?

○吳景義委員 예. TNT가 그때 필요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TNT 가지고 간 것도 처음 듣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래요?

○證人 周永福 예.

○吳景義委員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갔다는 증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證人 周永福 예.

○吳景義委員 이 TNT와 그외의 여러가지 장비를 누구한테 쏘려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크레모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안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처음 들으니까... 가지고 간 그 당시의 장비는 5月 21日 3空輸旅團에서 수류탄 1,590個를 가지고 갔고 7空輸旅團에서는 TNT 100「파운드」 수류탄 3,300個를 가지고 갔읍니다.

5月 22日 3空輸旅團에서는 「크레모아」180個를 가지고 갔읍니다. 5月 23日 3空輸旅團에서는 TNT 350「파운드」를 가지고 갔읍니다. 7空輸旅團에서는 「크레모아」 50個를 가지고 갔읍니다. 航空隊 20mm「발칸」砲 1500발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5月 24日 20師團

M-60 機關銃彈 1600발도 가지고 갔습니다. 5月 26日 野公園 TNT 100「파운드」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기들을 국미를 위한 軍隊가 자기의 주인인 국민을 살상하기 위해서 동원된 무기로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이나마이트」등 示威鎮壓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證人은 보낸적도 아는 사실도 없다는 얘기지요?

○證人 周永福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엇보다 때문에 다른 한가지 가상해서 제가 만일 가지고 갔다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어떠한 국민의 생명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회생시키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결코 가져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吳景濤委員 확신하세요?

○證人 周永福 예. 이러한 것을 어디...

○吳景濤委員 이 자료는 國防部에서 저희 國會로 넘어온 자료입니다. 文書檢證班에서 本委員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면 5月 17日 저녁 7時 15分부터 다음날 18日 8時 30분까지 戒嚴狀況 日誌도 漏落되어 있습니다. 隱蔽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당시에 일부 政治慾에 불타는 軍人들이 나쁜 음모를 劃策하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光州市民은 우리 모든 國民과 동등한 우리 國民입니다. 그리고 60萬 大軍도 우리 國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國軍이 일부 政治軍人들로 하여금 光州市民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裝備와 物資를 動員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시니 저의 質問을 마칠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다음은 李敏燮委員 訊問 해주십시오.

○李敏燮委員 李敏燮委員입니다.

방금 제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이런 쪽지를 하나 받았읍니다. 市民으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방금 우리 同僚委員중에 우리 國軍이 또 우리 光州..... 당시 現場에 참여했던 軍이 日本軍보다 殘虐하고 蘇聯軍보다도 殘忍하며 왼손에는 短劍을 쥐고..... 이러한 發言을 한 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받고 들어 왔

읍니다.

어제부터 저는 이 聽聞會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상처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물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國會는 分裂이 아닌 和合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요 본연의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인 되지 않은 참혹한 사진들이 생생히 여러차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차체에 분명히 歷史의 現場에서 규명되어야 하겠읍니다. 和合을 회구하면서 이 聽聞會를 지켜보는 우리 國民들이 生放送으로 비친 이 마음아픈 사진들을 보고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지 또 이렇게 하는 것만이 光州市民과 우리들 모두를 위하는 길인지 당시 悲劇의 現場에서 任務遂行중에 참혹하게 죽어간 軍警의 사진도 公開되어야 하는 것인지 거래가 지어준 制服을 입고 오직 命命 하나에 青春과 生命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國軍將兵들의 士氣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참으로 염려되는 바입니다.

모든 國民의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溶解 統合시키는 國會가 되고 우리 光州市民의 명예를 찾아 드리는 特別委員會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몇가지 訊問하고자 합니다.

우리 周證人께서는 1980年 5月20日 朴忠勳 總理와 光州에 내려가셨습니까?

○證人 周永福 안 갔읍니다.

○李敏燮委員 25日 崔圭夏大統領과 光州에 내려가셨습니까?

○證人 周永福 예. 내려갔읍니다.

○李敏燮委員 내려가셔서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셨지요?

○證人 周永福 못들어갔읍니다.

○李敏燮委員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證人 周永福 崔圭夏大統領께서 全南北戒嚴分所에 들르셔서 가지고 現況에 대한 報告를 받으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大統領께서 人命損傷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연후에 「라디오」에 그러니까 錄音하신 것이지요. 錄音해서 가지고 光州市民에게 宣撫하시고 또 자중해 줄 것을 당부하신 바가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 당시에 25日이면 光州의 市民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할 때 한 나라의 國防責任者로서 옷을 갈아입고 한 번 悲劇의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몸소 이것을 陣頭指揮해서 수습할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證人 周永福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大統領을 직접 모시고…… 光州에 내려오시도록 모신 사람도 저이고 그래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곳을 들어가보아야. 지금 같아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도 못했고 그 근처를 쪽 보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李敏燮委員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悲劇이 일어나고 또 불행이 치유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 책임 있는 地位에 있던 분들이 좀 더 이 民族과 國家를 생각하고서 積極的으로 일했었다면 이 치유는 아마도 오늘쯤은 말끔히 씻어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반성하기를 말씀드립니다.

○證人 周永福 예.

○李敏燮委員 우리가 光州의 悲劇이 일어나는 동안에 韓半島의 安保가 매우 어지러웠던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光州의 상황이 진행되는 기간중에 北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安保上的 脆弱點이 드러나고 있던 것을 우리는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北韓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副委員長 鄭金철은 80年5月 光州事態鎮壓을 위해 韓國軍이 이동한 것은 南侵을 위한 여러 好機중의 하나로서 우리는 사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존번스」의 「뉴욕타임즈」 記者와의 會見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기간이 南侵의 好機였는데 왜 이용하지를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周證人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용하지 않았을까 한 번쯤 추리를 해 보신다면 이것은 만약에 光州의 모든 상황들이 全南으로 번지고 이것이 이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더 번졌더라면 그들이 이러한 기

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라 하는 추리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당시 光州를 비롯한 全國의 騷擾事態를 鎮壓하기 위해서 空輸部隊과 海兵隊 기타 여러 後方部隊를 빼낸 것은 알고있읍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休戰線 地域에 脆弱點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美國과의 어떠한 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까?

○證人 周永福 예. 그 당시에 北韓의 挑發에 대처해서 당시 參議長이 주로 對美關係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航空母艦도 美國에서 저쪽쪽에 보내오겠다. 北韓을 對處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내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온 일이 있었읍니다.

○李敏燮委員 이 光州의 상황 進行期間中の 鎮壓作戰은 언제부터 檢討가 되었습니까?

○證人 周永福 鎮壓作戰은 檢討된 것은 戒嚴司令部에서 檢討하면서 진입하는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現地部隊에서는 빨리 좀 해결을 해야되겠다 이러한 얘기도 있었고 또 司令部에서는 이것을 좀 늦추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읍니다.

여기에 저도 개입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23日 내지 24日頃에 그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경파 온건파해서 그 市內가 아주 서로간에 主導權 싸움이 벌어지고 완전히 혼분상태가 가라앉기 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이러한 상태하에서 진입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은 진정되고 완전히 대부분의 선량한 市民과 좀 폭력적으로 하는 시위대하고 분리되는 이 時期를 택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戒嚴司令官이나 저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現地部隊에서는 상황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악화되었다 그래서 안 들어가길 잘했다 이러한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날짜를 늦춘 것은 아주 自衛自讚이 되겠읍니다마는 저희 上部에서 대략 결정을 한 것이 일찍 들어가는 것 보다는 좋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또한 이러한 平靜作戰이라 할까 이러한 것은 現地에서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戒嚴分所에서의 모든 판단이 가장 중요할 줄 압니다.

22日로부터 鎮壓作戰이 檢討되기 시작 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22日인지 23日인지 그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李敏燮委員 그래서 美國側에다가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할 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周永福 저는 직접 해본 일이 없습니다.

○李敏燮委員 어제 李煥性證人께서 全南北戒嚴分所와 2軍司令, 陸軍參謀總長에 대해서 作戰日誌가 拳論되고 거기韓美間의 協議事項을 24日까지 대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그 분이 자세히 얘기를 안했습니다. 軍事機密에 관한 문제인지 몰라도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얘기한 鎮壓作戰에 政府가 신경을 쓸 경우에는 休戰線쪽이 취약해지니까 그 문제에 관한 美國의 協調問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아는 바 없으십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은 陸軍本部에서 陸軍…… 戒嚴司令官이 그러한 協議事項을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직접 그에 대해서 美國側하고 이야기해보지 못했습니다.

○李敏燮委員 예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光州를 正常化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조속히 正常化되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相當期間 그 회복기간까지는 相當期間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美側에 대해서 참 安保에 관한 문제를 긴밀히 協議한 것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21日 下午 16時頃…… 16時30分頃이 되나…… 이 光州 全南道廳에서 戒嚴軍이 철수를 한 時期에 대해서 제가 만나본 光州市民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좀더 설득하고 직접 나서서 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수습에 임하였더라면 長期間의 공백상태가 없이 수습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당시 제가 알기는 戒嚴司令官이 國防長官과는 그 문제를 協議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데 撤收時期에 관해서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證人 周永福 撤收時期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21日 저녁 한…… 저녁인데요 제가 戒嚴司令官公館에 갔습니다. 公館에 갔는데 가니까 電話가 제가 들어가서 한 5分도 안됐는데 電話가 왔더군요. 그 電話가 왔는데 戒嚴司令官이 電話를 받았습니다. 電話를 받으니까 뭐 光州에서 電話가 오는 것 같데요. 보니까요. 그런데 아주 무슨무슨 報告를 하는데 戒嚴司令官이 이렇게 저를 쳐다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아! 事態가 무엇인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철수하라고 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하니까 戒嚴司令官이 철수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電話를 하신 분이 尹興禎將軍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李敏燮委員 예. 또 光州市民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중의 하나는 事態初期 警察官이 全南地域에서 모두 철수했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소문인지 실지로 다 그렇게 모두 철수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언제 警察官이 이렇게 非公式이든 公式이든 어떠한 철수의 作戰을 한적은 있습니까?

○證人 周永福 警察에 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警察이 아주 완전히 公權力을 상실해서 光州市內에서 대부분 他處에 빠져 나갔거나 혹은 일부 少數입니다마는 光州에 남아서 民間服裝을 하고 지냈다 하는 이러한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면 22日부터 27日까지 완전히 光州는 政府의 公權力이 마비되는 그러한 無政府 상태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幹線道路가 폐쇄되고 또 長期戰化되어 가고 있고 集團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또 生必需品도 부족해서 많은 市民들은 生活의 불편을 겪고 따라서 戒嚴軍의 진주를 상당히 바라는 속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證人 周永福 예.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報告받은 바가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누구의 재량으로 鎮壓作戰은 결정이 됐습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은 戒嚴司令官인데 實質的으로 具體的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결심한 것은 당시의 全南北 戒嚴分所長인 蘇俊烈將軍입니다.

○李敏燮委員 「디데이」는 정해지고 時間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디데이」作戰開始日까지도 다 재량이 같은 것이니까?

○證人 周永福 그러니까 27日 이후에 ……

○李敏燮委員 零時이후의 상황은 다 現地의 ……

○證人 周永福 예. 그것은 現地 司會官이 판단하는 상황이다 …… 中央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現地狀況은 現地部隊長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李敏燮委員 空輸部隊가 步兵腹裝을 한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진압당시 ……

○證人 周永福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空輸部隊가 상당히 初期段階에서 좀 光州市民으로부터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強力鎮壓을 했다 이래서 市民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나지 않도록 ……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그 鎮壓作戰에 있어서 「탱크」와 裝甲車를 앞세워서 진압을 했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證人 周永福 「탱크」라든지 裝甲車를 그러한 深夜에 또 그것은 그때 얘기를 후에 들었습니다마는 作戰후에 기습기습이라고 하면 어찌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모르게 살짜기 들어가는 이 作戰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라든지 이러한 裝甲車를 앞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참고입니다마는 지난번에 民和委에서 그 얘기라는 것을 들어 보니까요 좀 참고로 들어 본 것이 있는데요.

蘇俊烈將軍이 뭐 兩動作戰 軍隊에서 말하는 兩動作戰이라 해서 그 하는 척하는 거지요. 하는 척 하면서 하지 않는 거지요.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데 이쪽에서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兩動作戰은 했다 이러한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李敏燮委員 예. 兩動作戰 可能性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탱크」같은 것은 또 앞세워가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겁을 먹으니까 武力示威로서 이러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다 우리 光州市民의 마음속에는 하나하나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證人 周永福 예.

○李敏燮委員 이 鎮壓作戰을 할 때에 犧牲者가 全南道廳에서 마지막까지 交戰하는 가운데 몇 名이나 나왔습니까?

○證人 周永福 全體的으로 道廳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全體的으로 열일곱분이 희생당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李敏燮委員 17名이요?

○證人 周永福 예. 27日의 鎮壓作戰에 있어서 ……

○李敏燮委員 여기에 대해서 그 殺傷을 좀더 極小化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이것이 作戰上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證人께서 그 당시에 좀더 우리가 한 名의 死傷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는가 하는 事後評價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證人 周永福 예. 여러가지 現地部隊도 그렸고 戒嚴司令部도 作戰指針을 내렸고요. 또 저 자신도 당부의 말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數日前부터 말이지요.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犧牲者를 極小化시키는 여기에 第1位의 重點을 두고 하는 作戰을 遂行하도록 이렇게 指針이 내려가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辛基夏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러나 끝까지 抵抗한 強硬示威隊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대단히 괴상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李敏燮委員 마지막 鎮壓過程에서 이것이 예상보다는 短期間에 이것이 成功的으로 끝났다고 평가되었습니까? 당시 ……

○證人 周永福 短時間에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하튼 成功的이라기 보다는 여하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李敏燮委員 光州市民들이 22일부터 27일사이 여러가지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軍當局으로서는 어떠한 間接的인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까? 現地에 물건을 投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市民들의 생활을 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證人 周永福 그 나름대로 상당히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참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積極的으로 그 당시에 실시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李敏燮委員 鎮壓後에 모든 사태가 正常化되고 28日 아침 7時쯤 또는 8時쯤해서 거리에 이제 새로운 활기가 돌고 모든 질서가 이제 正常化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光州市民들이 戒嚴軍에 대해서 정말로 협조해 주고 또 모든 일에 앞장서서 自律的으로 질서를 原狀回復하고 급속한 正常化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 그 당시 國防責任을 맡았던 분으로서 光州市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셨습니까?

○證人 周永福 대단히 고맙다고 아주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었읍니다.

○李敏燮委員 다음은 死亡者問題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死因을 조사함에 있어서 屍體剖檢結果를 보면 銃器死亡이 135名 또 이중에 戒嚴軍이 소지한 M16 死亡이 98名 나머지 37名 이러한 他 銃器類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屍體剖檢結果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 銃器類가 5,000挺이상 이렇게 紛失되었다가 일부 回收되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서 이러한 死因이 나온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M16 負傷者가 98名 나머지 37.....

○證人 周永福 M16 銃器는 戒嚴軍만이 가지고 있던 武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이라든지 M-1이라든지 이러한 銃은 전부 豫備軍用으로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銃器는 완전히 戒嚴軍이 가지고 있는 銃器하고 武裝示威隊가 가진 銃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李敏燮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周永福 그렇기 때문에

○李敏燮委員 말씀해 보세요.

○證人 周永福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된 이것은 아까 98名이라고 하셨지요? M-16.....

○李敏燮委員 예.

○證人 周永福 이것은 분명히 戒嚴軍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고 나머지 이것은 제가 推定하기에는 銃器를 가지고 무장한 示威隊의 誤發事故라든가 또는 示威隊間의 衝突 또는 流彈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推定이 됩니다.

○李敏燮委員 銃器를 다루기가 서툴러서 誤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證人 周永福 예.

○李敏燮委員 시간이 다 된 것같아서 質問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8年前 悲劇의 現場 光州에 있었던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제 다시 우리 歷史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原因을 철저히 가려서 그러한 原因의 糾明이 事態豫防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歷史的인 所任을 받은 本 特別委員會의 所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證人께서는 당시 책임을 맡으셨던 입장에서 이러한 歷史的인 敎訓들이 다시 再發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在野에서나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나머지의 餘生을 전력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本委員의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文東煥 고맙습니다.

이제 民正黨 民主黨 平民黨 이렇게 새 黨에 한 사람씩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보니까 이제는 얘기해야 할 것들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경향이 많은데 될 수 있는대로 반복을 피하고 새로운 각도의 質問들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張石和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張石和委員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세 證人의 證言을 들으면서 과연 光州抗爭의 勃發動機및 原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證人들이 정확한 證言을

해주지지 않는 바람에 우리의 소기의 目的이 아직까지 달성되지 않고있는 點은 다른 委員과 마찬가지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또 全國民이 알기에는 이 光州抗爭의 勃發動機는 분명히 일부 극소수 政治軍人들의 計劃的인 執權陰謀에서 비롯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全斗煥씨를 비롯한 證人을 포함한 政治軍人集團이 12·12事態에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을 건넜고 또 全斗煥保安司令官이 4月14日 中央情報部長官署理를 겸직하면서 그 實勢를 표면에 드러냈고 5月17日 非常戒嚴擴大措置로 인해서 그들의 執權陰謀를 實行에 옮겼고 5月31日 國保委를 設置해서 實質的으로 權力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積極的으로 사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마는 證人께서도 本委員의 質問에 다른 同僚委員들에 대한 불성실한 그러한 證言을 하지 마시고 부디 後輩軍人들이 또한 은갓 國民이 證人을 보고 있습니다. 事實대로 答辯을 해주셔야만 오늘 이와 같이 光州抗爭 勃發動機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國民에게 명백히 밝혀지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익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의 委員들과 중복된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고 몇 가지 證人의 證言中에 의문나는 점 또 이것이 僞證이 아닌가 하는 점만 골라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12·12사태에 관해서 證人이 合搜本部長으로부터 報告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委員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證人은 그 당시 國防長官으로서 合搜本部長의 指揮 監督者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指揮 監督權을 행사해서 철저한 報告를 받았어야 됩니다.

證人이 아까 報告받은 내용중에서 불가피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가피한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證人 周永福 그 당시에 朴正熙大統領의 시해에 대해서 金戴圭와 合作을 해서 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金錢도 또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일어났다 이래서 그것이 저한테 상당히 후에 그

러니까 鄭昇和씨가 國防部 保護檢 軍法會議에 회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搜查完了때 가지고회부될 직전에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거로 보니까 불가피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張石和委員 다른 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上司로서 下級者인 合搜本部長의 報告를 충실히 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證人의 職務遺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證人 周永福 저는 職務遺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때는 이미 상당히 지났고 그 軍法會議넘어갈 때까지는 상당히 期間이 있었고 그 동안에 저는 全般的인 軍의 團結이라든지 對 北韓에 대한 경계라든가 또는 國內外 여러 가지 騷擾에 대한 鎮壓問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습니다.

○張石和委員 됐어요.

그 다음에 4月14日 全斗煥 情報部長署理가 任命됐었지요?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그 당시 證人은 國防長官이었지요?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全斗煥 情報部長署理 任命에 國務會議 審議를 거쳤습니까? 證人이...

○證人 周永福 잘 기억은 안납니다.

○張石和委員 情報部長署理가 全斗煥씨가 됐는데 이 全斗煥씨는 保安司令官이었습니다. 그러면 證人麾下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 텐데요.

○證人 周永福 國務會議가 開催돼가지고 됐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당시 證人의 麾下에 保安司令官이 있었기 때문에 關係 國務委員이라고 해가지고 副署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周永福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張石和委員 全斗煥 情報部長 署理任命에 관해서...

○證人 周永福 그러니까 國務會議에 그것이 上程된 건지 또 제가 參席을 했는 건지 지금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그 副署 자체도

기억이 안납니다. 總務處에 있으면은...

○張石和委員 좋아요.

그런데 말이요. 證人의 下級者인 保安司令官이 情報部長을 겸직해 버리면은 證人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오허려 말이지요. 證人보다도 實際적으로 權限을 더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생각 안해 봤습니까? 證人의 權限을 오허려 침범하는 越權的인 그러한 任命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證人 周永福 그렇게는 단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그 당시에 말이지요. 中央情報部長署理로 任命했는데 그것이 中央情報部法에 규정된 兼職禁止條項에 위배된 것이라고 證人은 보지 않았습니까?

○證人 周永福 몰랐습니다. 그것은...

○張石和委員 證人麾下의 保安司令官이 情報部長署理가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證人 周永福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李煥性 당시 戒嚴司令官이 參謀次長에 中央情報部長으로 中將에 간 예가 있기 때문에 그저 軍人도 中央情報部長 그쪽으로 겸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和 情報部長과의 사이에는 調整業務가 있기 때문에 情報部의 業務에 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證人 周永福 情報部 業務입니까?

○張石和委員 中央情報部의 業務에 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지요?

○證人 周永福 제가요?

○張石和委員 예.

○證人 周永福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張石和委員 情報部長署理로 全斗煥씨가 그 당시에 合同搜查本部長 保安司令官 이렇게 세 가지 職責을 兼職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全斗煥 保安司令官이 실제로 이 분이 實權者인데 이와 같은 實勢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情報部長 署理라고 하는 職責에 얹힌 것 아닙니까 않은 것 아닙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은 任命權者만이 압니다.

저희들도 전연 任命된 과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張石和委員 모릅니까?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결국은 말이지요. 이와 같이 全斗煥씨가 情報部長署理에 앉음으로써 그 全斗煥씨 實權을 장악함으로써 證人도 거기에 그와 같은 全斗煥씨의 權力集中 行爲에 幫助 내지는 목인을 한 것이 되는데 證人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의 下級者가 거기에 앉았는데 그와 같이 그것이 違法인지 適法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께 제가 묻는 것이 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非常戒嚴으로 擴大되기 전까지는 證人의 麾下에 戒嚴司令官이 있었지요?

○證人 周永福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地域戒嚴은 朴大統領 弑害事件으로 發令된 것이지요?

○證人 周永福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崔圭夏大統領이 就任 後에 緊急措置 9號를 해제하고 또 違反者들을 釋放하고 또 그 政治日程을 밝히고 그 다음에 2月末에는 다시 約 700名에 대해서 赦免復權하고 이와 같이 政治活性化와 安定을 이루어 나갔는데 證人은 그런 과정을 다 지켜 봤지요?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그러면은 그와 같이 政治的인 安定을 이룩하고 있었는데 證人은 戒嚴司令官의 指揮監督者로서 非常戒嚴의 계속실시가 戒嚴法規定에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까?

○證人 周永福 戒嚴의 解除말씀이지요?

그러한 政治發展을 위해서 방금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시피 그와 같은 措置를 취하면서 漸進的으로 그러한 民主化 또 自律化 이것을 위해서 邁進하고 있었던 도중에 그와 같은 學園騷擾가 일어나고 이러한...

○張石和委員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것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證人이 戒嚴解除 建議者이지요?

○證人 周永福 建議者는 아니고 要請만 할 수 있지요.

○張石和委員 建議할 수가 있도록 戒嚴法施行

수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證人 周永福 예. 요청할 수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그와 같이 建議權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證人은 봅니까 어떻습니까? 建議權을 제대로 행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解除입니까 擴大입니까?

○張石和委員 解除입니다.

○證人 周永福 解除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檢討해...

○張石和委員 해본 바가 없습니까?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바로 그것이 證人의 職務遺棄입니다.

證人은 말이지요. 非常戒嚴 解除하기는 커녕 5·17 全軍主要指揮官會議를 주도하면서 非常戒嚴擴大를 오히려 決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大統領에게 建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證人이 당시 實勢인 全斗煥씨를 추종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全斗煥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 아닙니까?

○證人 周永福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솔직한 말씀은 그동안 들었고 全斗煥씨 지시는 받았는지 그걸 물어 여기서...

○證人 周永福 안받았습니다.

○張石和委員 그것은 證人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지금까지도 많이 僞證을 많이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證人이 5月22日 단행된 改閣에서 그대로 國防部長官으로 留任됐지요?

○證人 周永福 예. 留任되었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그래서 그런거예요. 결국 證人이 그와같이 자기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職務를 유지하고 全斗煥씨와 같은 政治軍人을 추종한 것이 光州抗爭의 5月 참상을 일으킨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證人 인정합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은 인정 못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다음에 時局對策會議에 관해서 證人과 全斗煥 保安司令官 內務長官 등이 大統領과 時局에 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時局對策會議를 자주 가졌지요?

○證人 周永福 자주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大統領과 가진 것이 1주일에

한 번도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10일에 한번 정도...

○張石和委員 1주일에 한번도 안된다 좋아요. 그 당시 말이지요 그 會議에서 무슨 얘기를 주로 했습니까? 時局問題에 관해서 협의 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여러가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赦免 復權問題라든지 그런 등등도 했고요 ...

○張石和委員 좋아요.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對策會議에서 말이지요. 全斗煥씨가 國內外 및 軍事에 걸친 情報擔當者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안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全斗煥씨가 가만히 있었어요?

○證人 周永福 그 會議에도 中央情報部長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全斗煥씨를 實權者도 안 보았습니까? 證人은... 時局意策會議를 가지면서...

○證人 周永福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國防部長官 될 때 저는 누가...空軍出身이기 때문에 陸軍에 대해서 高級將星을 예뻐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崔大統領이 全斗煥씨를 지휘 명령 지시 했습니까? 반대로 全斗煥씨가 崔大統領한테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은 물론 大統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證人은 鄭鎬溶 그 당시 特戰司令官이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 참석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周永福 예.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런데 아까 委員들 質問에 鄭鎬溶씨가 그 指揮官會議에서 非常對策機構와 비슷한 얘기를 꺼낸 일이 없다고 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그런 얘기가 안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44名이나 거의 전부가發言했기 때
문에...

○張石和委員 분명합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은 제 기억에 있어서는
그러한發言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張石和委員 鄭鎬溶씨하고 대질해도 좋습니
까?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대질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제
시하겠습니다. 鄭鎬溶씨가 週刊朝鮮 10月23日
字 「인터뷰」기사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문기를 鄭鎬溶씨에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案
을 上程시켜 議決케 했다던데요. 이것이 85
年 5月17日 國防部에서 열린 全軍主要指揮官
會議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鄭鎬溶씨 答辯
이 여러 계층의 國民들이 참여하는 非常對策
機構라도 만들어 國民들의 의사를 대변하자는
뜻의發言을 했습니다. 그 때 내 眞意는
昨年 大統領選舉前 野黨이 主張했던 것처럼
過渡內閣 또는 舉國內閣과 같은 機構를 만들
어 위기를 관리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분명
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저는 지금 그런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억에 없습
니다.

○張石和委員 아까 기억에 없고 안했다고 그
랬지요. 어제 李煥性씨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럼 李煥性씨 하고 證人하고 事前에 각본을
짜 가지고 僞證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와같이 분명히 鄭鎬溶씨 張本人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證人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證人 僞證아닙니까?

○證人 周永福 그러나 非常對策委員會의 國保
委 얘기는 그런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습
니다.

○張石和委員 이렇게 鄭鎬溶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證人 지금 僞證을 합니까?

○證人 周永福 國保委입니까?

○張石和委員 非常對策機構에 관해서 제가 읽
어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證人 周永福 저는 기억에서는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렇게 까지 僞證을 하시립니
까?

○證人 周永福 鄭鎬溶 당시 將軍이 그러한
얘기를 한 非常 國保委라든지 그런 것을 저
는 모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僞
證을 했다고 하는 證據가 바로 여기에 있습
니다. 좋습니다. 證人! 앞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 委員會에서 證人을 僞證으로 告發을 하
겠습니다.

權正達씨가 그 날 아침에 個人的으로 證人
에게 國保委 얘기를 꺼냈지요?

○證人 周永福 예. 國保委 비슷한 얘기입
니다.

○張石和委員 또 그 날에 있었던 主要 全軍
指揮官會議때 鄭鎬溶씨가 이와 같은 非常對策
機構를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와
같이 權正達씨나 鄭鎬溶 같은 政治軍人들이
이미 그 때서부터 그에 대한 議論을 했다고
하는 분명한 證據가 되는데 證人 어떻게 생
각합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非常對策機構와 國保委와는 별도
기구라고 생각합니까?

○證人 周永福 鄭鎬溶將軍이 만일 얘기했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國保委 같은 것을 뜻하
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非常對策機構와 같은 論議를 鄭鎬
溶씨가 언급한 바가 없다고 證人이 僞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證人 周永福 아침부터 제가 얘기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아마 제가 애
기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게 그 얘기입니다.

○證人 周永福 기억에 없는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그 다음에 證人이 非常戒嚴擴大
措置에 관여한 정도를 제가 세 가지만 들었
습니다. 證人은 戒嚴司令官과 民主化를 요구
하는 學生들이나 政治人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議論한 일이 많이 있었지요?

○證人 周永福 戒嚴司令官과 말입니까?

○張石和委員 예. 戒嚴司令官과...

○證人 周永福 움직임에 대해서요?

○張石和委員 民主化 要求하는 學生들이나 政
治人들의 움직임들에 대하여 많이 議論한 일

이 있지요?

○證人 周永福 그런 데에 대해서 별로 議論한 바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證인이 5月17일까지는 證인이 國防部長官으로서 地域戒嚴의 責任者였습니다. 그런데 戒嚴司令官과 이런 議論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證人 周永福 治安秩序維持라든지 주로 만나면 이 얘기입니다.

○張石和委員 좋아요. 그 다음에 5月16日 밤 11時頃에 證인이 全斗煥씨 內務部長官과 함께 靑瓦臺에서 大統領에게 非常戒嚴을 확대해야 할 이유를 大統領에게 설명한 일이 있죠?

○證人 周永福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어제 李煥性씨가 얘기했는데요?

○證人 周永福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李煥性씨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張石和委員 잘 얘기하세요.

○證人 周永福 제 기억으로서는 틀림없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다음에 5月17日 밤 9時 國務會議때 中央廳 廳舍와 복도에까지 執統한 軍인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證人 周永福 예. 있었읍니다.

○張石和委員 執統까지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證人 周永福 執統까지는 모르겠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왜 軍인들이 그와 같이 廳舍와 복도를 경비를 했읍니까?

○證人 周永福 그러니까 그 당시에 國家 重要施設의 경계임무를 부여했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 전에도 그와 같은 軍인들이 항상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읍니까 경비하고 있었읍니까?

○證人 周永福 아닙니다.

○張石和委員 그 날만 유독 그랬지요?

○證人 周永福 예. 그랬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 심야에 軍인들이 복도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경비하고 있는 마당에 그 國務會議가 제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된다고 證인은 보았읍니까?

바로 그것이 공포분위기하에서 그 國務會議가 이루어진 것으로 國民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또 金玉吉長官도 그렇게 陳述을 하고 있

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周永福 저는 金玉吉長官님께서 어떠한 ... 아침에도 제가 잠깐 봉변 당한 일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委員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은 들어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오늘 처음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

○張石和委員 좋아요. 짧게 얘기하세요. 다 얘기한 거예요.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그러면 이것이 強壓的인 분위기가 아니고 공포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까?

○證人 周永福 軍인이 거기서 警戒強化의 일 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느낄 때에는 공포분위기로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대로 느끼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國務委員中에 어떤 사람은 공포적인 분위기로 느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周永福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客觀的으로 보면...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그것이 強壓에 의한 國務會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證인의 산 證言입니다.

다음에 5月18日 0時以後에 全國戒嚴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금까지 누누이 나온 대로 政治人들에 대한 예비검속 在野 民主人士들에 대한 不法連行 拘禁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證인이 全國戒嚴 實施하기 이전에는 證인이 戒嚴責任者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證인이 그와 같은 搜查官들이나 軍人들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까.

證人! 어떻습니까?

戒嚴軍인들이나 戒嚴搜查官들이 이 사람네들을 구속하고 예비검속하고 連行하고 軟禁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당시 5月18日 0時以前까지는 證인이 戒嚴責任者로서 責任을 져야 되는 것이고 證인이 實質的으로 지휘한 것 아닙니까?

○證人 周永福 지휘한 바는 없읍니다.

○張石和委員 合同搜查本部長이 지휘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搜查는 搜查官들이 해가지고 報告가 올라왔습니다.

○張石和委員 좋아요. 그러면 搜查官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證人 周永福 마음대로는 아니겠지요.

○張石和委員 그러면 누구 지시를 받아했겠지요?

○證人 周永福 어떤 組織內에 있어서의 長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했겠지요.

○張石和委員 搜查官들을 最終的으로 지휘하는 責任은 地域戒嚴 당시에 證人한테 있었지요? 地域戒嚴 당시에 戒嚴搜查官들을 最終的으로 지휘하는 責任은 證人한테 있었지요?

○證人 周永福 지휘계통상으로 꼭 올라오면 國防長官까지 올라옵니다.

○張石和委員 그렇지요?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그러면 證人이 最終的인 法的 責任을 져야지요? 어떻게습니까? 져야 됩니까 안져야 됩니까? 最終的인 責任者로서...

○證人 周永福 最終的인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져야지요.

○張石和委員 예. 져야지요? 양심적으로 證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證人이 말이지요. 이 全國戒嚴을 發議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周永福 發議요?

○張石和委員 發議建議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周永福 國務會議에서요?

○張石和委員 예.

○證人 周永福 提案說明을 했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 全國戒嚴으로 인해서 5月20日 國會가 강점되었어요 證人 알고 있지요?

○證人 周永福 강점된 데 대해서는 모릅니다.

○張石和委員 國會의 기능이 일시 정지되었지요? 20日 召集公告가 되어 있었는데 20日 못 열렸지요? 열리지 못했지요?

○證人 周永福 國會에 관해서는 公告되었다 하는 그것도 몰랐고요. 대단히 실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몰랐고...

○張石和委員 證人이 戒嚴責任者로서 그것도 모릅니까? 證人이 戒嚴責任者로 있을 때 공

告를 했습니다. 證人이 그렇게 僞證하면 됩니까?

○證人 周永福 저는 몰랐고요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은 이것은 證人이 全國戒嚴을 發議建議해서 國會機能을 一時停止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李煥性證人의 말씀대로 그것은 분명히 內亂罪인데 이것은 證人이 그 내란죄를 최소한도 방조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證人은 그와 같은 책임을. 지금 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습니까?

○證人 周永福 당시의 戒嚴司令官이 제가 알기에는 兵力配置는 戒嚴司令官 소관인데요 그 부대가...

○張石和委員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5月20日 國會에 軍人을 배치시킨 것이 證人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證人은 이와 같이 全國戒嚴을 發議하고 建議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強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國家機關의 憲法機能을 一時停止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國憲이 문란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內亂罪입니다. 따라서 證人은 內亂罪 방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證人 周永福 그 警戒強化 任務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張石和委員 證人이 法을 몰라서 잘 모르지요?

○證人 周永福 警戒強化를 위해서 國會에 兵力이 배치된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國防部長官까지. 했으면 그 정도 法은 알고 있어야지요! 어떻게입니까? 法도 모르고 國防部長官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時間이 다 되어서 한 두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충정작전에 관해서 證人이 鄭稿濬씨 李煥性씨 全斗煥씨 등과 事前議論한 바가 있지요?

○證人 周永福 없습니다. 충정작전에서 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이 判여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잡아 메고 있습니까?

○證人 周永福 증정작전에 대해서 말입니까?
 ○張石和委員 증정작전 이것에 관여한 일이 없어요?
 ○證人 周永福 27일에 말씀입니까?
 ○張石和委員 아니예요. 그 27日 이전이라도 좋습니다.

이 증정작전에 관해서 證人이 관여한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周永福 증정작전이라는 것은 全體的인 光州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事態 당시의 全體를 말하는데요 시기가 언제인지...

○張石和委員 그러니까 증정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鎭庄作戰입니까? 鎭壓作戰에 관해서 證人이 관여한 바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證人 周永福 예. 조금씩 鎭壓 지휘하는데...

○張石和委員 그렇게 자주 말씀을 사실대로 하셔야지요.

○證人 周永福 예.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조금씩인지 아닌지 몰라도 관여한 바가 분명히 있지요?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한 鄭鎭濬씨나 李性씨나 全斗煥씨 등과 만난 일이 있지요? 議論한 일이 있지요?

○證人 周永福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만난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의 말을...

○委員長 文東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張石和委員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까.

證人이 말을 도대체 國民들이 믿을 수가 있어야 믿지요? 이랬다저랬다 하고 또...

○證人 周永福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이 있는 것은 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확실히 말씀하십니까?

○證人 周永福 예. 확실히 제가 기억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숨김 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年度8月21日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서 證人이 全斗煥大將을 大統領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證人 周永福 예.

○張石和委員 이것은 軍의 政治的 中立을 현저히 全斗煥씨는 물론 證人도 위반하였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證人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합니까 인정 못 합니까?

○證人 周永福 그 당시 社會的 與件이라든가 地理的 狀況으로 보아서는 사실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張石和委員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證人 周永福 지금 생각은 그 당시의 狀況에서 판단의 기준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지위에서 판단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제는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張石和委員 예. 정리합니다.

지금 證人은 歷史的 審判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 비추어보아서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으로 비추어 보아서도 국민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證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자주 시점에서는 證人은 얘기 안하고 그 당시 상황만 얘기합니까?

○證人 周永福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대한 證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張石和委員 이상 證人의 證言을 우리가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그 동안 오늘 하룻동안 證人이 한 證言은 우리 國會를 冒瀆했다고 하고 또한 우리 國會에 대해서 僞證을 했고 國民을 기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근한 예로 鄭鎭濬씨의 全軍主要指揮官會議에서의 證言을 資料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도 證人은 완강히 否認하고 있을 정도로 僞證을 하였습니다. 證人! 다른 委員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실을 國民앞에 명백히 털어 놓아야 될 때가 왔읍니다.

그래서 그 동안 證人이나 全斗煥씨와 같은 그러한 一部 政治軍人들이 政治介入을 해가지고 얼마나 비극적인 그러한 사태를 초래했는가 하는 점을 證人이 깨닫고 명백히 自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光州抗爭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證人이 용서를 빌고 또 그 분네들에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

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國軍本然의 任務에 충실한 60萬 現役軍人들의 名譽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證人이 정직한 태도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李海瓚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李海瓚委員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밤 10시입니다. 꼭 12時間동안 證人이 證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委員이 중요한 質問을 國家의 存亡에 관련된 중요한 質問을 그토록 진지하게 訊問했음에도 불구하고 證人은 유감스럽게도 僞證과 기억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國防部長官 그리고 內務部長官을 거치면서 우리 社會에서 가장 중요한 治安의 業務를 擔當했던 사람입니다. 證인과 같은 公職者가 그렇게 기억이 불분명하고 所憶이 없는 公職者가 그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國家의 治安을 맡아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本委員은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실망과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本委員이 12時間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證人은 꼭 기억하지 못할 것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國會召集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國會가 1980年5月20日 召集되어서 議題가 戒嚴解除에 관해서 論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戒嚴을 관장하고 있는 戒嚴司令官의 上級者인 國防部長官이 戒嚴解除를 論議할 國會가 召集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國民들이 證人의 證言을 믿겠습니까? 또 證人이 주도한 5月17日 全軍主要指揮官會議의 會議內容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主宰한 者가 모르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國民들이 믿겠습니까?

또 5月20日 國會에 議員들이 登院하는데 戒嚴軍의 部隊가 武力으로 막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證人은 몰랐다고 答辯 하고 있습니다. 이미 外僞에도 보도가 되었고 國內新聞에는 戒嚴의 統制下에서 보도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長官이 몰랐다고 하면 國民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戒嚴法이 合同搜查本部를 설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違法이라는 사실을 委員들이 法律을 가리켜 주면서까지 質疑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證人은 몰랐다는 말로 僞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光州에서의 死亡者라든가 당시 國際情勢라든가 아니면 일련의 證人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상하고 소신있게 지금 答辯을 하고 있습니다. 證人의 證言은 僞證일뿐만 아니라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의 聽聞會를 그것도 수많은 사람의 恨이 맺힌 5·18光州民主化運動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이렇게 모인 聽聞會를 모독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英靈들에 대한 모독일뿐만 아니라 國民에 대한 모독이고 民族에 대한 모독입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證人을 國會冒瀆 및 僞證에 관해서 告發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本 特委를 이 聽聞會가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정식으로 다루어 줄 것을 提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이 提案을 받아서 우리 幹事會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平民黨의 趙洪奎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趙洪奎委員 光州直轄市 光山區出身 趙洪奎委員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죄송합니다. 될수 있는 대로 반복을 하지않고 꼭 요령을 잡아 해주십시오.

○趙洪奎委員 證人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980年 5月18日 光州 全南大學校 校庭에서 200餘名의 大學生들이 戒嚴軍에 항의하는 것부터 소위 1980年5월에 光州民衆抗爭이 시작되었다고 證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證人 周永福 예.

○趙洪奎委員 묻습니다. 200餘名의 大學生이 示威를 했는데 戒嚴軍은 그 후로 계속 增強되었는데 3日만에 왜 그 戒嚴軍이 그 수많은 戒嚴軍들이 光州市內에서 撤收하게 되었습니까?

○證人 周永福 처음에는 제가 듣기에는 全南大學 正門에서 한 200名정도가 投石을 하면서 市內로 진출해 오면서 警察과 충돌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市內에 사람도 많이 늘어

났다고 합니다. 늘어나가지고 警察車輛이 방화되었다 이것을 제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警察官들이 많이 부상을 당했다 投石으로 인해서...

○趙洪奎委員 200名한데요?

○證人 周永福 아니지요. 그 때는 상당히 學生數가 늘어났지요.

○趙洪奎委員 學生數만 늘어났습니까?

○證人 周永福 學生數가 늘어났지요.

○趙洪奎委員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證人 周永福 제가 기억하기에는 확실한 數字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000名가까이로 늘어났다 그레가지고 警察이 負傷者가 많이 속출하게 되자 戒嚴軍에게 지원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指揮官이 그 現場에 나가서 示威를 鎮壓을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全南大와 朝鮮大學에 있는 戒嚴軍이 示威現場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가서 거기에서 붙은 것입니다.

○趙洪奎委員 며칠날입니까?

○證人 周永福 18日 오후 늦게쯤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동해가지고 강경 진압하게 되고 연행하는 학생을 잡는데 때리기도 하고 옷이 찢기기도 하고 또 끊어앉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市民들 일부가 흥분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또 기상천외한 그런 惡性 流言蜚言로 유포되어가지고 그래서 사태가 점점 커져서 그날 메리고 치고 이런 식으로 변져가서 上昇作用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외의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全國이 조용했습니다. 18日 全國 戒嚴이 되어서 全國이 조용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점심식사 직전에 光州에서 이런 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時間的으로 나중에 보니까 報告가 좀 빨랐겠지요. 뭐냐 하니까 돌을 던지고 이런 것이 났다 뭐 대수로운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趙洪奎委員 내가 묻는 것은 18日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아시는데 19日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證人 周永福 19日부터는 말하자면 단편적으로 「타이프」로 몇時 몇分 어디에서 200名 총들...

○趙洪奎委員 그러면 20日은...

○證人 周永福 그것도 깊이 모르지요.

○趙洪奎委員 그러면 18日만 정확히 아시는군요?

○證人 周永福 그리고 21日 철수하게 되니까...

○趙洪奎委員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證人 周永福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道廳 앞에 示威群衆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示威隊도 무장하고 있고 戒嚴軍 무장한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流血이 일어난다 이런 판단하에 尹興禎將軍이라고 들었습니다. 武裝司令官에게 전화하는 것을 제가 官舎에 가서 退勤 조금 뒤인데 거기에 가서 전화오는 것을 제가 직접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통화를 해요.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기에 제가 이것 뭐가 있구나 싶어서 손짓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撤收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撤收는 되어 있었는데 철수에 대한 報告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니까 철수를 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20師團이 증강되고 그랬지요. 그런데 처음에 200名이던 事件이 3日만에 그 막강한 特戰司가 가고 20師團이 갔는데 어떻게 해서 가만 있는데 市民들이 할일 없어서 戒嚴軍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데모만 해가지고 결국 數가 많아져서 戒嚴軍이 철수했다 그 말씀입니까? 戒嚴軍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한 가지 묻게요. 光州 望月洞墓地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周永福 그 옆은 통과했음니다마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趙洪奎委員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 墓地에 가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죽은 젊은이들의 나이가 다써 있어요. 예를 들면 그 墓 하나에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당신은 천사였소 저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또 만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비석이 있는데 그것이 1日 20日 21日그래요 死

亡 날짜가 그래요 아시겠어요.

반면에 여기 新聞에도 나왔지만 李光魯 前將軍 報告書에 있다는 것 24일에 部隊間에 서로 誤認射殺을 했지요.

예를 들면 31師團하고 機甲學校兵力하고 서로 誤認해서 싸워서 죽고 또 같은 날 11空 輸旅團하고 步兵學校兵力하고 싸워 죽고 그것은 24日입니다.

그런데 내 말씀은 21日 證人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철수했어 쫓겨났어 시민들한테... 군인들은 24일에 죽고 시민들은 19日 20日 21일에 죽고 누가 죽었어요? 총기는 22日 價에 못 이긴 흥분한 戒嚴軍한테 당하다 당하다 그것은 사진도 보고 다 보셨을테니까 긴 설명을 안 합니다. 그 시민들이 마치 못해 할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나서 戒嚴軍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 상황은 모르시고 人道的 견지에서 철수 해주었습니까? 戒嚴軍이 市民軍한테 쫓겨났지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證人 周永福 시민한테...

○趙洪奎委員 市民軍한테, 이미 市民軍까지 결성했어요. 이미 戒嚴軍들이 敵地에서 敵軍을 죽이듯이 하니까 大量虐殺을 하고 殺戮을 하니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市民軍까지 만들었어요. 저도 그 市民軍中의 한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證人께서 말씀하시는 暴徒입니다. 처음에는 맨손으로 돌조각으로 싸웠던 그 市民軍한테 戒嚴軍이 쫓겨난 사건이 21日 철수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周永福 쫓겨났는지 하여튼 철수했습니다.

○趙洪奎委員 예. 철수했지요.

다행한 것은 證人께서 18日 상황이라든지 21日 상황을 매우 소상하게 보고 들으신 것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다음으로 물읍니다.

證人께서는 아까 光州市民들 民衆抗爭을 한 시민들이 모두 暴徒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證人 周永福 모두는 아닙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얼마나 暴徒입니까?

○證人 周永福 제가 보기에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충...

○趙洪奎委員 얼마라고 보십니까?

○證人 周永福 제가 보기에 우선 橋導所襲擊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趙洪奎委員 敎導所襲擊에기를 갑자기 하시는데 光州 길거리를 잘 아십니까? 光州市街地를 잘 모릅니다.

○趙洪奎委員 언제 襲擊했지요? 敎導所를 시민들이 언제 襲擊했어요?

○證人 周永福 제가 알기로는 22日23日...

○趙洪奎委員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1日 戒嚴軍을 쫓아낸 시민들이 그 승리의 소식을 全國 각 지역에 전달하려 다 퍼져갔습니다. 저도 내 고향인 松汀里로 달려갔습니다. 이겼다고 우리가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났다고 戒嚴軍을 쫓아냈다고 나도 松汀里간 사람입니다. 光州市內에서...

문제는 지금 무조건 橋導所襲擊이라고 하는데 橋導所가 襲擊받을 사실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나 하면 松汀里쪽으로 가야되고 和順 밑으로 가려면 「터널」쪽으로 가야되고 谷城 潭陽 順天쪽 이것을 알리러 시민들이 가려면 어쩔수없이 지금 敎導所가 서 있는 자리 橋導所자리가 잘 못 되어 있어요. 지금 橋導所알을 지나가야 됩니다. 셋길로 가면 뒤로 가야 되고 거기를 지나지 않고는 潭陽 順天 求體 谷城 玉果에 알리는 길이 없어요. 알리러 가는데 그 橋導所 지키는 戒嚴軍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쏘았어요. 그것이 누가 습격한 것이에요. 橋導所를 지키던 바로 그 戒嚴軍들 特戰司사람들이 승리의 報를 알리러 가는 사람들을 쏘았어요. 그 상황을 알아야지 橋導所襲擊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습격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죄수들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에요. 시민승리의 소식을 알리러 간 사람들을 戒嚴軍들이 쏘았어요. 그 사건이에요. 交戰이라고 지금 證人께서 말씀하시려던 그 사건이 그것을 알리러 「트럭」을 타고 버스를 타고 順天方向 潭陽方向 가는 사람들을 쏜 것이 그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다면 그 사람들이 폭도라면 그 폭도들을 사살하셨습니까? 폭도들만 사살하셨습니까?

○證人 周永福 그 당시에 폭도로 규정된 분이 제가 듣기에는 교도소 습격을 했던 분이리든지 또 각종 무기를 탈취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해서 끝끝내 저항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분들로서 극소수라고 듣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證人께서 말씀하신 폭도는 23日인가 22日인가 교도소 습격한 분 또 그 후에 무기뎀은 분들 그것은 전부 20日 이후입니다. 그런데 당시 政府當局에서는 18日부터 폭도가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戒嚴軍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師團도 들어오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證人께서 말씀하신 폭도는 18 19 20日 폭도하고 21 22日 이후 폭도하고 구분이 됩니까 다릅니까? 그 暴徒가 어느 暴徒인지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폭도가 준동했다고 그랬는데……

○證人 周永福 저는 폭도라고 그 당시에 들은 것은 그러니까 교도소 습격을 했다 이런 사람이라든가 무기를 탈취해서 뒤에서 아주 최후까지 戒嚴軍하고 대치해서 교전을 했든지 해서 사살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戒嚴司 公式發表에 폭도가 18日부터 준동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폭도는 극히 일부라는 것이지요.

市民 대다수는 폭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證人 周永福 대다수 光州市民 말씀입니까?

○趙洪奎委員 그렇습니다.

○證人 周永福 물론이지요.

○趙洪奎委員 아까 辛基夏委員도 鄭祥容委員도 다 입증하셨지요? 그 분들이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셨지요?

○證人 周永福 예. 무기를 탈취해서 주동적으로 지휘하고 끝끝내 마지막까지 저항한 이러한 분들은 그 당시에 폭도라고 했고……

○趙洪奎委員 鄭祥容委員같은 분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은 분들……

○證人 周永福 어느 분인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趙洪奎委員 鄭祥容委員같은 분 저같은 경우…… 제 말씀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폭도가 아닌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지요? 光州에서……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證人 周永福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폭도가 아닌 市民을 죽

입니까? 폭력을 행사한 우리들이 폭도지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까? 폭도라고 해서 光州市民들이 죽었다는데 제 얘기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光州市民의 명예를 더럽힌 그 폭도라는 용어를 證人 혼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인데 제가 분명히 여쭙니다.

폭도가 아닌 수많은 시민 民主抗爭을 한 시민들을 폭력으로 살상을 한 학살을 한 그 우리들을 폭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어디까지나 교도소 습격을 했다가 무기를 탈취해서 최후까지 투쟁한 이런 사람들은 당시 폭도라 했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그야말로 시민은 그것은 정말 선량한 시민입니다.

○趙洪奎委員 그 시민을 향해서 27日 진압할 때 그 시민을 향해서 또 총을 쏘셨지요?

○證人 周永福 쏘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趙洪奎委員 政府 쪽에서 얘기하는 진압을 하셨지요? 그때 총 쏘고 하셨지요?

○證人 周永福 총을 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상황은……

○趙洪奎委員 제가 8年을 참아 온 사람이고 우리 光州市民 全南道民들이 8年을 참고 있고 언제까지 참을 것입니다. 證人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다음 물겠습니다. 證人께서는 金大中內亂陰謀事件이라는 事件을 아시지요?

○證人 周永福 예.

○趙洪奎委員 戒嚴當局에서 發表한 것이지요?

○證人 周永福 예.

○趙洪奎委員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까지 여러 委員들께서 소위 1980年5月17日 全軍主要指揮官會議나 또 國保委 設置나 당시 또 國會占領이나 이런 것들이 內亂罪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 政府 쪽에서는 金大中 일당이 內亂을 陰謀했다는 것이고 지금 이 時點에서 많은 委員들은 그 주동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全軍主要指揮官會議 國保委 이런

일당이 內亂을 했다는 것이고 金大中씨는 內亂陰謀인데 이 반대 편은 內亂입니다. 양쪽 다 內亂이…… 內亂陰謀가 됐든 內亂이 됐든 어느 쪽 한쪽이 일방이 걸리는 것같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周永福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趙洪奎委員 간단히 말하면 金大中 일당이 內亂陰謀했다는 사건이지요?

○證人 周永福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런데 방금 證人께서는 여러 委員들한테 소위 金大中씨 일당 24명 그 분들 內亂陰謀라고 하는 裁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證人 周永福 예.

○趙洪奎委員 그러면 여러 委員들께서 소위 全軍主要指揮官會議 44名 특히 證人이 召集하여 주재한 44名 거기도 지금 內亂罪를 범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委員들 말씀은……

○證人 周永福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趙洪奎委員 아니 여러 委員들 말씀이니까……

○證人 周永福 글썽요 여러 委員님께서 內亂罪라고 한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趙洪奎委員 아니 말씀을 듣지 못했다니 內亂罪에 해당된다고 지금 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듣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까?

○證人 周永福 예.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예. 알겠어요. 다른 분은 다 들었으니까 證人만 못 듣고 제십니다. 證人과 그러면 金大中씨가 光州民主抗爭을 배후조종했다고 하는 당시 戒嚴當局이나 政府當局의 그 단정을 인정하십니까?

○證人 周永福 그 문제는 司法府의 최종 審議되는 大法院의 確定判決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證인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그 때는 그렇고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周永福 지금도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周永福 최종 確定判決나온 사항을 일개 자연인이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趙洪奎委員 잘 모르시겠지요? 그것도 판단

을 잘못하시겠지요?

○證人 周永福 판단을 잘못한다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大法院은 저희 나라의 最高判決機關이기 때문에……

○趙洪奎委員 알았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저는요 당시 金大中證人의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하는 民主憲政同志會라는 소위 막후에서 光州事態를 조종했다는 그 組織의 代辯人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망을 光州로 갔습니다. 18日 새벽에……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제가 도망을 5月17日 全軍擴大會議하고 金大中先生을 잡아갈 때 제가 도망을 새벽에 光州로 갔습니다. 아무 일 없는줄 알고…… 고향쪽으로 도망간다고…… 그래서 긴 얘기할 것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바로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具體的인 상황이라는 가 말단의 부대이동상황을 잘 모르십니까.

묻겠습니다. 당시 保安司令官 全斗煥將軍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매일 報告받습니까?

○證人 周永福 매일 報告받지 않습니다.

○趙洪奎委員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證人 周永福 아니 情報報告라든지 이런 것은 올라옵니다마는 매일 보고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趙洪奎委員 잘 모르지요. 대충만 알지……

首警司令官 盧泰愚將軍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證人 周永福 首都警備司令官으로서 首都地域에 대한 經費任務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趙洪奎委員 特戰司令官 鄭鎬溶將軍이 뭐하시는지 아십니까?

○證人 周永福 特戰部隊를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20師團長 朴俊炳將軍이 뭐하시는지 아십니까?

○證人 周永福 그 당시에 戒嚴軍으로 陸軍中央機動部隊로서 경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光州民衆抗爭당시 어디 계셨어요 朴俊炳將軍 같은 경우……

○證人 周永福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光州는 예하부대만 보내고요 20 師團長...

○證人 周永福 그러니까 20師團이 光州에 내려간 것이 그러니까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무렵에...

○趙洪奎委員 잘 모르시지요? 具體的으로는요.....

○證人 周永福 具體的으로는 모르지요.

○趙洪奎委員 朴熙道將軍이라든지 朴世直將軍이라든지 保安司쪽에 權正達氏라든지 예를들면 許三守氏라든지 許和平氏라든지 李鶴樺氏라든지 崔坪旭氏라든지 예를들면 이문석氏라든지 김진영將軍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위 12·12事件 주역들이 필한지 잘 모르시지요? 그당시에 5·17前後해서...

○證人 周永福 그당시는 잘 몰랐읍니다.

○趙洪奎委員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光州狀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現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命命을 하달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證人께서는.....

○證人 周永福 그것은 戒嚴司令部에서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러한 報告書가 수시로 이렇게.....

○趙洪奎委員 報告書만 오지 그분들끼리 또 그분들은 그분대로 現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특히 保安司令官 같은 경우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證人은 모르시지요?

○證人 周永福 報告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趙洪奎委員 모르시지요. 鄭鎬溶將軍 같은 경우가 몇번 光州를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것 아십니까?

○證人 周永福 鄭鎬溶將軍은 4月18日 陸軍本部의 直轄部隊長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總長한테 報告하고 또는 報告안하고도 갔다 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國防長官에게는 통상 그러한 指揮官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報告를 하지 않고.....

○趙洪奎委員 모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全斗煥將軍과 그 일당들이 무슨 짓을 한지 光州를 강압진압을 하였는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證人은 證人으로서의 증거능력이 立證能力이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焦點은 누가 아까 폭도의 문제든지 內亂問題라든지는 이미 윤곽이 드러났는데 누가 발포했는가 이제

調査의 焦點이 되었기 때문에 證人은 그 측면에서 證人으로서의 임무가 거의 끝나 갑니다. 그 문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다음 문제 묻습니다.

將軍들이 예편할 때 대체로 훈장 받습니까? 예편하실 때.....

○證人 周永福 예편시에 勳章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准將에서부터 少將 中將 大將까지 꼭 예편시 주는 것은 아니지요?

○證人 周永福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어떤 경우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證人 周永福 在職期間 중에 공로가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특출한 事由가 있었을 때는 주게 되고 在任期間 중에 뭐 事故가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事由가 있었을 경우에는 주지 못합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勳章중에 陸軍規程131 第8條 포상추천기준을 보면 가장 좋은 훈장이라고 하는 태극무공훈장은 이런 기준에서 주지요. 戰鬪에 참가하여 필사의 각오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部隊의 勝敗를 좌우하고 그 공적을 國內外的으로 선양할 만한 수훈자 그렇지요? 태극무공훈장 가장 서훈 중에서 가장 高價로 평가되는 그렇지요?

○證人 周永福 예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全斗煥大將께서 1980年8月22日 豫編하실 때 무슨 勳章받으셨지요?

○證人 周永福 태극무공훈장입니다.

○趙洪奎委員 그 功績事由 推薦基準은... 추천은 그러면 長官이 하셨지요?

○證人 周永福 推薦입니까? 예. 長官입니다.

○趙洪奎委員 推薦基準이 아까 戰鬪에 참가하여 필사의 각오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部隊의 勝敗를 좌우하고 그 功績을 國內外的으로 선양할 만한 수훈자 陸軍大將 全斗煥大將에게 태극무공훈장 주었지요?

○證人 周永福 예 주었습니다.

○趙洪奎委員 어느 戰鬪에 참가했지요?

○證人 周永福 그 당시에 여러가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다 이러한 기준하에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戰鬪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戰鬪에 어느 戰鬪에 참가했어요.

○辛基夏委員 光州戰鬪에 참가했다고 해요 솔직하게

○趙洪奎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周永福 아니 그것 때문에 드린 것은 아니지요.

○趙洪奎委員 推薦者가 아닙니까?

國防長官! 推薦하신 분이지요?

제가 조용 조용히 8年 묵은 恨을 삭이면서 조용 조용히 묻습니다. 특히 李光魯委員 조용히 해주세요! 어떤 戰鬪에 참가했느냐고 全斗煥將軍이

○證人 周永福 어떤 戰鬪에도 참가안했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런데 예 태극무공훈장을 주어야 되지요?

○證人 周永福 그러니까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趙洪奎委員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황을

○證人 周永福 여러가지 業績이지요 그 당시에

○趙洪奎委員 業績?

○證人 周永福 예.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당시 태극무공훈장을 추천해서 國務會議 議決을 거쳐서 大統領께서 드리도록

○趙洪奎委員 제가요 들어나마나 한 答辯을 열심히 듣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證人은 오늘 이 시간 證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光州聽聞會가 계속됩니다. 對質訊問도 해야 되고 또 僞證했던 것 다시 證言도 해야 되고 끝나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今年內에 끝나는지 알지만 이 光州問題는 어쩌면 수십年이 걸릴지도 몰라요.

證人은 살아있는 동안 이 問題의 진상이 밝혀지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證人으로 나와야 될지 몰라요.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있습니다.

○證人 周永福 예. 알겠습니다.

○趙洪奎委員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月27日 그 무자비하게 光州市民들을 학살해서 平定을 찾았다고 그랬지요?

그 동안에는 無法天地라고 그랬지요? 열흘간은 5月18日부터 27日 새벽까지는 光州가

無法天地라고 그랬지요? 證人께서 政府쪽에서

○證人 周永福 無法天地보다도 治安空白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趙洪奎委員 政府 公式發表에 無法天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證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들어나마나 한 答辯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訊問받은 중에 제 訊問에 가장 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도 가장 많이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당시에 21日 이후 市民軍이 光州市를 장악했던 1980年5月21日부터 27日 새벽까지 특히 26日 밤까지 그때가 無法天地라고 했는데 어떤 事故도 없었고 우리 光州市民들은 정말로 모처럼 우리들의 主山 無等山처럼 평온하게 平和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證人과 여러분들에게 제가 報告하면서 제 訊問 마칩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이제 沈明輔委員 訊問해 보십시오.

○沈明輔委員 民主正義黨의 沈明輔委員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神은 人間에게 희망과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人間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고 겪고 듣고 안 일들을 모두 잊지않고 평생을 기억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人間이 정상생활을 과연 영위할 수 있을까 걱정해 봅니다.

또 이 망각 덕분에 직접 겪지않은 홀려간 상황을 記憶이나 資料를 더듬어 原狀 그대로 完全 再生할 수 있을 까 생각해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昨年 87年11月 초순은 모든 國民이 기억하시다시피 16年만에 처음으로 내손으로 뽑는 大統領選舉를 앞두고 10.26 朴大統領 시해당시의 陸軍參謀總長인 鄭昇和將軍이 돌연 統一民主黨에 入黨함으로써 選舉戰에는 소위 12.12 事態가 최대쟁점으로 등장했습니다. 伏兵으로 나타난 이 12.12「이슈」는 나라 안팎을 들끓게 했습니다. 12月16日 選舉前날까지 1個月동안을 野團 세 후보가 盧候補에 대한 主攻擊武器로 活用하였던 사실을 國民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12·12事態는 光州事態와 더불어 大統領選舉期間동안 과거 어느 時代 事件보다도 國民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 크게 걸려진 事案이라 여겨집니다.

昨年 11月12日 우리나라 言論 親陸團體中 가장 오랜 年輪을 싸았고 그 權威를 認定받는 寬勳「클럽」은 당시 盧泰愚 民主黨 후보를 초청해서 討論會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討論者들로부터 제일 먼저 제기된 문제가 바로 이 12·12事態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個人의 記憶이나 回想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사태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의 한 분인 盧候補의 發言을 證人에게 직접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용하기에 앞서 證人께 한 가지만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證人の 視覺의 차이 인식의 차이를 한번 재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책을 비판할 때에는 지난날 그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초를 이루었던 이론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10年 20年 前 일어났던 狀況 事件들을 비판하고 또 논의하려면 그 당시 일어났던 정황과 배경 여러 가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10年前 20年前的의 일들을 오늘 이 쟁점의 形式論理라는 尺度가지고 그것을 재려고 보면 과연 그 눈금이 맞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는 많은 國家的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80年代에 그러했습니다. 그때 政府가 관리한 國家의 危機狀況에 대해서 지금 10年 가까이 흐른 이 상황에서 그것을 오늘의 尺度로서 또 오늘의 기준으로 잴다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證人の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證人 周永福 저도 무슨 일이든지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모든 것을 논의를 해야지 그것을 지나간 8年 9年 지나간 오늘에 와서 오늘의 이 쟁점에서 8年前的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좀 정확성이 없지 않느냐 오

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沈明輔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당시 寬勳「클럽」討論會에서 말씀했던 盧候補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盧候補는 昨年 11月12日 年後 6時半에서 근 세시간 이상을 討論會에 참석을 했음이다라는 12·12事態가 지금 選舉「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10·26事態를 우리가 한번 回想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年間 權力 그 權力도 거의 絶對權力입니다. 이 權力이 일시에 무너진 것입니다.

國力에 큰 진공이 생기고 엄청난 태풍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政治的인 혼란이요 社會的인 혼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濟州道를 제외한 全國이 非常戒嚴下에 일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政治的 社會的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軍은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國民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軍隊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또 軍隊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큰일이다 그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金載圭가 國家元首를 弑害하고도 나중에는 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民主의 투사다 自由의 투사다 이렇게 얘기되기 시작했고 또 搜查는 늦어졌습니다. 그 사건당시 鄭昇和씨가 그 옆체에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銃聲도 다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國民들은 그에 대해 의심을 했었고 우리 軍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金泳鎭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지금 이 자리는 5·18光州虐殺真相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沈明輔委員 그러한 상태에서 搜查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서는 큰일난다. 軍隊가 두쪽이 나서 싸운다 했을 때는 큰 國家 存亡의 위기가 된다고 판단되는 이런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던져서 軍隊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된다 軍隊는 반드시 자기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고착이 돼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救國一念에서 12·12 그날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것이 정말이다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證人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지 이틀후인 12월14일에 國防部長官에 취임하여 자세한 정황은 물론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후 證人께서 판단한 내용과 비교해서 제가 인용한 이 말과는 어떠한 차이를 발견했습니까?

○證人 周永福 별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沈明輔委員 다음 12·12事態나 5·17을 「쿠데타」나 武力政變으로 보려는 시각의 質問은 바로 이 光州特委 討論聽聞會에서도 제기됐었고 그 당시 寬勳「클럽」 討論會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光州特委에서는 어제 여러 委員들이 빈번히 거론을 했습니다.

寬勳討論會 記錄에 의하면 이 사람 救國의一念이다 이와같이 얘기했습니다. 金載圭씨가 自由의 투사다 民主의 투사다라는 방향으로 搜查가 진척돼서 軍隊가 분열됐을 때 그야말로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반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軍도 제압했고 다했는데 그렇다면 3權을 잡아야지요. 權力을 잡아야지요. 國家權力을 잡은것이 「쿠데타」인데 그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우리는 그대로 복귀 軍의 임무를 정상으로 수행했습니다. 모든 政治는 政治人이 할 수 있게끔 말기고 우리는 주어진 여건대로 戒嚴業務 軍의 본연의 業務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쿠데타」는 아마 人類歷史上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盧候補는 또 「쿠데타」를 하는데 사전에 兵力을 동원하지 않는 「쿠데타」가 과연 성공하겠는가 이러한 「쿠데타」는 世界 어느 나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證人께서 과연 12·12事態나 5·17 全國非常 戒嚴擴大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쿠데타」로 보입니까? 아니면 18年間 막강한 權力을 쥔 國家元首가 심복부하에게 불의에 살해된 國家權力의 眞空狀態에서 나온 救國一念의 행위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周永福 그것은 저도 앞서 말씀드렸음

니다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불가피한 救國的인 그러한一念에서 나온 것이지 「쿠데타」라고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沈明輔委員 그 다음 사건당시 盧候補가 司令官으로 在任中이던 9師團의 일부 豫備兵力을 指揮系統의 명령없이 서울에 출동시킨 행위가 安保의 論理上 그리고 軍隊의 規律上 어떻게 正當化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寬勳討論會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盧候補는 명령은 거기에 모인 사람 거기는 景福宮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역시 軍團長級도 있고 師團長級도 있고 해서 그 指揮系統에 의해서 9師團兵力의 動員은 盧泰愚 이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前方의 위험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兵力을 동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前方에 모든 措置를 강구해 놓고 동원된 그 兵力은 서울近郊의 豫備兵力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證人の 견해는 어떻고 이에 대해서 수궁을 하시는지요?

○證人 周永福 그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없는 것은 저는 그대로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모든 國民이 다 이해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沈明輔委員 다음은 다시 이 討論會에서 매우 신랄하게 제기된 質問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 討論會에서는 출동된 9師團의 1個聯隊의 豫備兵力은 休前線에 가까운 지역을 지키던 部隊인데 이것이 빠져들 때 만일 北韓이 南侵을 개시했다면 서울까지 들리게 될 위험이 높다는 鄭昇和將軍의 發言이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盧候補는 前方部隊에서 豫備隊에 있는 일부 兵力이 빠져 나왔을 경우 만약 南侵을 했으면 큰 危險性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데 역시 결과는 證明됐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12·12事態 이후에 우리 軍 首腦部 그리고 美8軍까지도 진지하게 거론되어 논의가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國家의 危機狀況으로 보아서 그렇게 동원됐던 것이 그 위기를 구출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물론 前方에 있는 豫備兵力이

라 하더라도 그것을 봄으로써 전혀 前方防禦에 아무런 장애나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危急은 外患도 危急이요 內患도 危急입니다. 안으로 무너질 수도 없고 바깥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國家의 安保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은 바깥도 책임지고 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救國的 일념에서 兵力이 동원됐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答辯을 하셨습니다.

證人께서는 지금 제가 인용한 가운데 8軍에서도 거론되었다는데 거론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證人 周永福 당시 거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마는 제가 國防部長官으로 갔을 때에 「위کم」 司令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군요.

○沈明輔委員 마지막입니다. 이 討論會에서는 軍統帥 系統을 어긴 軍先輩의 行動이 지금처럼 正當化되고 또 그러한 사람이 大統領 候補까지 된 것을 보고서 後輩軍인들이 유혹을 느껴 兵力을 끌고 나오는 事態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質問이 나왔습니다. 盧候補는 저희가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歷史앞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正義의 편에 서서 했다. 正義의 편에 서서 했다. 國家元首를 弑害한 犯人 옆에서 結果的으로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해서 충질을 하는 부하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여기에 陸軍參謀總長이 와 있다고 부하들에게 고무해서 그 비참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指揮官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스스로 물러나든가 하는 것이 그 당시 軍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上官에게 어떤 불경한 것을 했다 하는 것은 그 보다도 더 큰 명분과 底意가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本人은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證人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그 충정이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證人 周永福 예. 이해됩니다.

○沈明輔委員 本委員은 1年前 盧候補의 寬勳 「클럽」 討論場에서의 發言과 說明內容을 時間

이 허락하는 한 비교적 자세하게 證人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12·12事態는 形式論理의 次元 못지 않게 安保次元의 논리로써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歷史意識을 가지고 조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 事態는 13代 大統領選舉를 통해 2,000萬이상의 有權者의 審判을 거쳤고 그 결과 國民的 合意아래 第6共和國이 國民으로부터 正統性을 부여받아 出帆하였다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더 訊問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周永福 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證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停會하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證人 들어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金相賢씨의 證言을 듣겠습니다.

證言을 듣기 전에 關聯法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위반하면 處罰할 수 있는 規定과 이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 處分을 받지 않는다는 保護規定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證人宣誓가 있겠습니다. 證人 나오셔서 宣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相賢

(證人宣誓)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첫번째 訊問으로 統一民主黨의 吳景義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景義委員 統一民主黨의 吳景義委員입니다.

어제의 聽聞會에서 金大中 內亂陰謀事件은 일부 政治軍人들의 執權을 위하여 在野 民主人士들을 말살시켜려고 事前에 조작된 政治陰謀劇이었다는 점이 들어났는 바 이 事件과 관련하여 그 허구성을 폭로하고 당시의 일부 政治軍人의 무자비한 暴惡性을 밝히기 위해서 本委員이 訊問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證人이라고 呼稱을 하겠습니다.

證人께서는 어제 平民黨 總裁이신 金大中證

人的 內亂陰謀事件에 대한 聽聞會를 TV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어제 사실 외국에서 손님이 좀 오셔서 가지고 그 분과 얘기하는 시간 때문에 TV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證言內容의 일부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證人は 현재 統一民主黨 副總裁이지요.

○證人 金相賢 예.

○吳景義委員 證人は 70年代 維新反對로 投獄된 경험이 있지요?

○證人 金相賢 72年度에 投獄된 사실이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몇年間 投獄되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한 2年 投獄되었습니다.

○吳景義委員 證人は 民主化推進協議會를 언제 組織했으며 어떤 職責을 맡았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85年度에 당시 金大中先生은 海外에 追放되어 가지고 亡命狀態에 계셨고 그래서 國內에서 현재 統一民主黨 總裁이신 金泳三 總裁와 더불어서 民推協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것은 84年度 5月18日 조직을 작업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당시 이른바 東橋洞系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大中씨와 협의해서 民推協을 結成하셨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國內에 있는 당시 東橋洞系 譜의 여러 선배님들과 협의를 하고 美國에 계시는 金大中先生과는 실지로 그 당시의 狀況이 저의 입장에서는 24時間 搜查機關에서 尾行을 해서 같이 다니는 입장이 되었고 모든 通信網은 盜聽이 되었기 때문에 美國과 연락하는 過程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 組織이 사전에 탄로가 되면 情報機關에 의해서 妨害되기 때문에 金大中先生과 그런 연락을 취하고 협의하고 그런 過程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吳景義委員 80年 소위 金大中內亂陰謀 事件으로 拘束된 적 있지요?

○證人 金相賢 그렇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몇年 刑을 받았더랬습니까?

○證人 金相賢 軍事法廷에서 10年刑을 받았습니다.

○吳景義委員 證人は 72년에 拘束이 되어서 2年間 服役을 하고 80년에 拘束이 되어서 2年3個月 服役을 했군요. 그렇다면 赦免 復權은 몇年만에 얻게되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赦免 復權이 저는 1次 2次가 되었는데요 87年7月29日 1次 赦免 復權이 되고 2次로 今年 3月1日 復權이 되어 가지고 17年만에 政治活動을 허용을 받았습니다.

○吳景義委員 5·17 全國非常戒嚴擴大措置辛 證人は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連行을 당했으며 連行당할 적에 끌려 간 곳은 어디입니까?

○證人 金相賢 5·17당시 제가 濟州道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韓國政治文化研究所에 濟州道에서 行사가 있어 가지고 5月17日 午後에 내려갔다가 5月18日 아침 새벽 한 4時쯤에 제가 아는 친지집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에서 連行되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連行당시 令狀을 提示하던가요?

○證人 金相賢 令狀은 提示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連行한 사람이 몇명이었으며 그중 現役軍人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

○證人 金相賢 軍服을 입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私服을 입은 분들이 連行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남니다마는 한 세사람 정도가 와서 해 가지고 濟州道에 安企部집으로 제가 連行이 되었지요.

○吳景義委員 그 당시에는 情報部라고 했는데 情報部에 가서 調査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濟州道에서 5月18日 아마 제 일 먼저 뜨는 飛行機인데 9時가 되는지 10時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飛行機로 해 가지고 그때 나와 같이 내려갔던 權赫忠이라는 우리 同志가 한 사람있는데 저하고 같이 두사람이 連行되어 가지고 서울로 도착해서 飛行場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같이 連行되었던 濟州道에서 올라 온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南山으로 連行되었습니다.

○吳景義委員 좋습니다.

그때 調査를 받을 적에 拷問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拷問얘기가 과히 좋은 기억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저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옷을 다 벗겨 가지고 완전히 裸體 몸으로 해서 「시멘트」바닥에 무릎을 꿇고 등 이런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것은 순간적이지만 잠을 안재워 가지고 2交代를 하는데 搜查官들은 비사람씩 해 가지고 2交代를 하면서 몇일간 搜查를 진행할 때 그때 그것이 아마 拷問받는 것 보다도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吳景義委員 證人은 鄭東年이라는 사람을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鄭東年이라는 사람은 搜查받던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證人은 鄭東年씨를 언제 만났습니까?

○證人 金相賢 제가 鄭東年이다 하고 내가 확인해서 만난 것은 제가 82年度에 釋放되어 가지고 먼저 나오고 아마 鄭東年씨가 82年度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보다 좀 늦게 나왔는데 83年度에 나와 가지고 어느 날 저희집에 鄭東年이가 인사차 방문와 가지고 제가 鄭東年입니다 해서 정말 제가 볼 때 처음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鄭東年이다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내가 이것을 좀 설명하면 나중에 鄭東年이 말을 들어 보니까 제가 법정에서 서라든가 만날 때까지는 鄭東年이를 전혀 기억이 없고 그날 만나서 처음 본 사람인데 제 事務所에 한번 인가 두번인가 와서 나하고 한번 악수하고 나간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좋습니다.

陸軍戒嚴普通軍法會議檢察部 檢察官 鄭基用 당시 陸軍中領이었습니까. 라는 이 사람이 作成한 公訴狀증 證人에 대한 公訴事實과 韓國憲法亂과 政府顛覆을 위한 內亂煽動部分에 의하면 證人은 5月8日 11時경 金大中씨의 집을 방문 同人으로 부터 鄭東年에게 支援하기로 한 金 200萬원을 受領 보관하였다가 鄭東年으로 부터 活動費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 200萬원을 제공함으로써 內亂을 煽動하고 등등 하면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公訴事實은 진실입니까?

○證人 金相賢 이것은 제가 法廷에서 1審裁判 2審에서 陳述했습니까. 라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法廷에서 그랬습니다. 鄭東年이라는 나는 出生후에 단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때 지금 平民黨總裁이신 金大中 선생님께서도 그랬습니까. 라는 鄭東年이를 제가 證人으로 檢察側에 裁判部에다가 요청을 했죠. 이 사람이 나를 만났다고 하면 지금 拘束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을 證人으로 내세워서 여기에서 眞否를 가리던 될 것아니냐 했는데 끝내 鄭東年을 證人으로 출석시키지 않고 裁判으로 됐는데 이것은 사실 鄭東年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문제로 造作해가지고 政治的인 하나의 큰 彈壓行爲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造作이란 말이요.

○證人 金相賢 예.

○吳景義委員 그렇다면 조사받을 때 처음 鄭東年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證人 金相賢 鄭東年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은 제가 지금 오래된 일이 돼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 라는 아마 5月末에서 6月初 그 사이 같은데 실은 문제가 鄭東年이 나오기 전에 光州에 누구 사람 아느냐 學生 아는 사람을 대라 대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鄭東年이가 얘기 나온 것은 鄭東年이의 自述書를 가지고 搜查機關員이 鄭東年이가 당신이 이렇게 돈을 쥐가지고 金大中선생 집에 데리고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光州의 國民을 煽動해서 民衆蜂起를 하기로 해서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自述書를 썼다. 그러니 왜 모른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옷을 벗기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鄭東年이 이름을 搜查過程에서 鄭東年이 自述書 내놓고 얘기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鄭東年이에 대해서 물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말씀하십시오.

○證人 金相賢 鄭東年이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까 自述書를 보여줘가지고 보는데 제가 이제 鄭東年이가 우리 事務所에 와서 내가 데리고 金大中선생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金大中선생한테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鄭東年에게 주었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陳述이 됐는데

나중에 鄭東年이 부분에 檢察官이 잠깐 나간 사이에 내가 陳述書 한쪽을 들어보니까 鄭東年이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良心에 가책해서 自殺해서 죽으려고 動脈을 끊어가지고 하다가 憲兵에게 들켜가지고 했다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몇 줄을 제가 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鄭東年 證人께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줄 압니다마는 그냥 강제로 어떻게든지 해서 너는 金大中선생을 光州事態에 連累시켜가지고 하나의 제거할 목적으로 일종의 하나의 脚本에다가 俳優를 모집하는데 저같은 사람이 거기 배역의 한사람으로 그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좋습니다. 그 鄭東年씨의 自殺企圖에 대한 부분은 資料에도 나와 있습니다. 證인에 대한 搜查의 초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時差別로 한번 말씀을 하시죠.

○證人 金相賢 대체로 처음에 막 들어가 가지고 조사할 때는 조사할 것이 없어가지고 과거 뭐했나 뭐했나 해가지고 자기 혼자 陳述書 쓰라고 해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光州에 무슨 學生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사진을 한 20장 가지고 와가지고 이 중에서 아는 사람 있나 해가지고 제가 짚어보니까 한 15명정도는 하는데 그 외에 한 다섯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큰 것도 가져오고 작은 것도 가져왔는데 아마 그 중에 鄭東年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고... 그런데 실은 鄭東年이 사건을 말하기 전에 光州에서 과거에 運動하고 주먹 좀 쓰고 하던 그런 세계에서 좀 놀던 추기명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세계에서 떠나서 事業을 하고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추기명이라는 사람의 所在을 대라고 한 1週日을 저를 독촉...아주 상당히 저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所在이 어디인지 모른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기명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逮捕가 되었다면 鄭東年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생도 안하고 회생도 안 당하고 추기명이물 저하고 연결시켜서 金大中선생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주 道德的으로 정말 金大中선생이나 제가 아주 國民에게 지

탄받을 수 있는 강재를 동원해가지고 光州의 派出所 불지르게 하고 이런 計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吳景義委員 좋습니다. 證인과 鄭東年과의 관계를 조작하려고 鄭東年의 陳述書를 「카피」한 것을 보여주면서 시인하라고 했었는데 당시 搜查官이 어떠한 태도로 하던가요?

○證人 金相賢 그때 여러 가지 시간도 없었고 밤도 늦었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까마는 鄭東年의 陳述書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鄭東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陳述書가 두개입니다. 한 사건에 陳述書가 내용이 다른것이 두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搜查機關들이 鄭東年의 관계를 해가지고 鄭東年이가 東橋洞에 간 것을 내가 봤다 이것을 해가지고 搜查記錄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光州에다가 자꾸이 事態를 만들고 民衆蜂起가 나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내가 했다고 그런 얘기들어보니까 光州에서 무슨 事態가 난 것이 아니냐 우리는 光州事態란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54日동안 南山 지하실에서 있으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事態가 났구나 욕감을 가져가지고 제가 陳述까지는 하고 제가 摺印을 찍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덧새가니까 搜查機關이 鄭東年問題를 안하기로 했다. 당신이 이제 살았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그냥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제는 金大中先生도 살고 참나도 살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6月初에 배가 아파가지고, 진단을 받으니까 盲腸炎이다 해가지고 제가 中央廳 옆에 있는 首都陸軍病院에 移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드레만에 돌아온 것이 19日인데 6月19日 돌아오니까 들어오자마자 鄭東年問題의 관계를 다시 물으면서 그때 金大中先生의 自述書 鄭東年의 自述書 이렇게 딱 내놓고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서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살아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陳述을 하고 法廷에 가서 밝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鄭東年문제 나올 때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盲腸手術하고도 계속 단식을 했습니다. 檢察官 陳述書에도 그렇게 돼 있음

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참
狀況이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狀況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吳景義委員 예. 어제 金大中證人의 證言
내용중 鄭東年과의 관계에 있어서 金大中씨는
鄭東年과 證人의 自述書를 보고 허위 조작된
鄭東年과의 관계를 시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證人은 언제 어떻게 조작된 혐의사실을 시인
하게 되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그것은 다시 말하면 鄭東年이
가 陳述한 내용대로 그대로 搜查機關이 불러
준 대로 그대로 쓴 것이지요.

○吳景義委員 예. 그 당시에 中央情報部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이제 말한 搜查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相賢 기억못합니다.

○吳景義委員 이름을 모르시면 얼굴이라도 기
억을 하시는지요?

○證人 金相賢 얼굴은 보면 알지요.

○吳景義委員 당시의 中央情報部長은 그때 누
구... 全斗煥씨였습니까?

○證人 金相賢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렇다면 金大中 內亂陰謀事件을
조작한 것은 당시 合同搜查本部長이며 中央情
報部長署理인 全斗煥 陸軍中將이었습니다. 그
럼...

○證人 金相賢 예.

○吳景義委員 證人은 中央情報部에서 조사를
받을 때 光州事態가 일어난 것을 아까 모르
고 계셨다고 그랬지요?

○證人 金相賢 예.

○吳景義委員 證人이... 檢察 公訴狀을 보면
證人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의 背後主謀者라는
사실을 알고서 당시의 心情은 어땠습니까?

○證人 金相賢 54日동안 南山 地下室에서 받
은 동안은 光州에 무슨 사태가 났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전혀 모르다가 陸軍矯導所
로 54日만에 이송이라고 그러니까 移監입니다
移送해가지고 檢察에서 檢察調査를 받는 과정
에서 軍檢察官이 光州事態에 대한 내용을 자
세히 얘기를 해주어서 내가 光州에다가 鄭東
年한테 돈 줘가지고 民衆蜂起가 일어나려면
市民이 피를 흘려야 되고 뭐 派出所에 불
지르고 이렇게 하고 내가 鄭東年에게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公訴狀이 작성이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우선 나도
죽고 더구나 또 金大中先生은 살아남기가 어
렵게 됐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었습
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光州抗爭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證人 金相賢 光州抗爭評價는 그당시 그 안
에서는 제가 전혀 평가할 수 있는 그 狀況
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마
는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光州民主化運動을
우리가 평가한다 그러면 많은 學者들이 얘기
할때 光州의 소위 民衆抗爭이란 것은 우리가
歷史적으로 脈을 찾으면 3.1運動의 精神이라
든가 4.19精神이라든가 그전의 東學革命 거
기까지 脈을 같이 해가지고 韓國의 우리 民
族史에 하나의 큰 우리가 앞으로 不義와 獨
裁에 항의한 그런 희생적인 鬪爭精神이 계승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사람
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造作된 光州事態關聯部分
에 대해서 당시 檢察官은 뭐라고 했습니까?

○證人 金相賢 檢察官은... 檢事까지 와가지고
이제 檢察에 가면은 좀 낫겠지 하고 거기
와서 否認하고 뭐 여러가지 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마는 檢察에도 아마 몇번씩 불러나가
가지고 정말 당할 수 없는... 무슨 檢察에서
고문당하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 같은 물어본 말 되풀이 물어보고 물어
보고 해서 사람이 좀 마음이 약해지고 이래
서 그런지 몰라도 搜查機關에서도 그렇게 인
정을 했고 또 檢察에까지 와서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裁判을 하면 법정에서 거기서 眞實을
폭로하면은 그것은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대로 是認하고 나왔지요.

○吳景義委員 檢察調書를 받을 때 그 부분을
是認했습니까?

○證人 金相賢 예. 是認했습니다.

○吳景義委員 언제 1次公判이 있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月傾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吳景義委員 그 날짜는 8月14日이었습니까.

收監中 戒嚴司의 어떤 高位幹部들을 누구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矯導所 그때 있으면서 裁判을
받기 전에 그당시 李鶴樺大領이 저를 면회했

와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러면 와서 뭐라고 합니까?

○證人 金相賢 그때 李鶴捧大領이 와가지고 얘기한 要點은 “뭇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 이러면서 “다른 것은 다 좋고 鄭東年이를 만났다고만 是認을 해주라 돈은 안반았다고 해도 좋다” 그러더구만요.

돈은 金大中씨한테 돈 안받았고 鄭東年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해도 좋다. 그런데 鄭東年이를 만났다고만 是認을 해달라 그러면 上部에 이야기해서 저를 석방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吳景義委員 시간관계상 公判進行過程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公判에 內亂部分인 鄭東年과의 관계를 檢察官이 물었습니까? 어떻게 물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公訴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鄭東年이를 데리고 가서 金大中씨 덕에 가 가지고 金大中先生은 돈을 200萬원인가 300萬원주고 그리고 金大中先生 말씀은 내가 金相賢委員한테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 金相賢委員 지시를 받고 앞으로 잘 하라고 그런 얘기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法廷에서 鄭東年이라는 사람은 出生以後에 만난 사실도 없다.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吳景義委員 公訴事實을 시인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證人 金相賢 아까 말씀한 대로 出生以後에 鄭東年이를 만난 사실이 없다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귀신도 아닌데 돈을 주고받고 거래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로 해서...

○吳景義委員 시간관계상 軍事法廷에서 檢察側이 金大中씨를 容共으로 물기 위해 間諜前歴이 있는 유효증을 채택하여 證言을 듣게 되자 여기가 共產黨의 教育場이나 라고 소리치며 항의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相賢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證人들은 받아 들이지도 않고 檢察側이 요구해가지고 金大中先生의 證人으로 檢察에서 요구한 사람인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尹某라는 在日僑胞 間諜이 轉向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日本서 데려와가지고 法廷에 세워서 檢察이 審問하는데 소위 됩니까?

韓民統關係 얘기하면서 이 間諜된 사람이 광동회라는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어가지고 金大中씨를 접촉하게 해서 그래 가지고 하루 하루 보고를 다 받고 이랬다 뭐 이러면서 金大中 現 平民黨總裁를 완전히 共產主義者들과 내통하고 소위 朝總聯 이쪽과 무슨 거래가 있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때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완전히 저 양반이 저렇게 해서 死刑당할 저런 과정으로 물고 가는 것을 보고 제가 순간으로 일어서가지고 아마 내 있는 목소리를 다 낸 것은 그 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의 46% 지지를 받은 第1野黨의 大統領候補였던 분을 轉向도 되지 않은 이런 間諜을 데려다 놓고 이것을 가지고 金大中先生을 容共分子로 몬다는 것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래가지고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文益煥 牧師님을 위시로 해 가지고 여기 李海瓚委員도 제십니다마는 24명이 벌떼 같이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裁判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吳景義委員 그 당시 金大中씨나 證人은 死刑宣告를 당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證人 金相賢 저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金大中先生은 저보다는 몇 십배 위시니까 100%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24명의 拘束된 사람들끼리 굉장히 눈물도 흘린 분도 계시고 그 양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吳景義委員 證人은 5月17日 24時를 기해 全國적으로 확대한 非常戒嚴措置에 대해서 과연 당시 戒嚴을 확대할 만큼 國家安危를 위협할 만한 그런 중대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金相賢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간간히 저도 TV를 聽問會를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신 委員들이 계시는데 제 견해로는 戒嚴令을 宣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政治的 狀況은 그런 또 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吳景義委員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證人 金相賢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없음

니다마는 國會는 國會대로 憲法改正特別委員會가 있어가지고 진행되면서 또 臨時國會 소집을 閱寬植 議長代理가 해 가지고 20日 전후에서 아마 된 것도 같고 또 政府에서도 憲法關係를 改正案을 가지고 國會와 折衷案을 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一般的으로 그 당시에 金大中先生은 軟禁이 되어가지고 집에 出入을 못 하실 텐데 金大中先生의 長男인 金弘一씨라고 있습니다. 金弘一씨가 중간에 東橋洞을 드나들기 때문에 金大中先生이 「메모」를 해 가지고 저한테 언제나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 「메모」내용이 뭐냐 하면 절대로 政局이 안정되어야 하고 또 이르기 위해서는 極限의인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民主化運動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설득해서 崔圭夏政權을 강화시키고 崔圭夏政權을 통해서 民主憲法을 改正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總選을 실시하고 이루어 나가는 合理的인 또 合法的인 그런 절차를 통해 가는 것이 이번에 절호의 民主化의 기회를 우리가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메모」로 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在野에 계시는 많은 분들· 뭐 尹潽善先生 高 銀先生 안병무博士님 이런 분들도 만나가지고 金大中先生의 뜻을 전달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극적이고 그런 極限의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全體的으로 보아가지고 學生 등도 자제할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崔圭夏政權에서도 뭔가 憲法改正을 해서 政治日程을 발표하려는 그런 노력도 했고 해서 戒嚴을 宣布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오늘의 不幸事態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吳景濤委員 時間關係上 證人은 79年 10·26 事件後 11月 24日에 일어난 소위 YWCA 事件을 기억하시지요?

○證人 金相賢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吳景濤委員 당시 이 사건으로 연행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相賢 예. 제가 연행됐었습니다.

○吳景濤委員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디로 연행이 되었습니까?

○證人 金相賢 YWCA 事件에 제가 거기 참

與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날은 보통 때보다도 밤 10時에 집에 일찍 들어 갔는데 들어가서 한 10分있으니까 搜查機關員들이 신발신고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가자 해서 연행되어가지고 처음에는 西大門의 專賣廳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갔다가 거기에서 제가 西水庫에 있는 搜查機關에 제가 연행이 되었읍니다.

○吳景濤委員 證人이 연행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連行時 命狀을 제시하던가요?

○證人 金相賢 命狀提示는 제가 받아본 일이 없었고요. 연행된 것은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연행되었는데 調査한 것을 보니까 제가 尹潽善先生 宅을 그 주에 1주일간을 하루도 빠지 않고 每日 尹潽善先生 宅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尹潽善先生님의 그 당시 路線이 維新憲法 即刻撤廢, 崔圭夏政權退陣 이렇게 해 가지고 강력히 나가고 제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金大中先生한테 報告를 弘一이를 통해서 했더니 金大中先生이 그 尹潽善先生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每日가서 尹潽善先生님하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結果的으로 搜查機關에서는 YWCA 事件이 나니까 내가 金大中先生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尹潽善先生과 소위 음모해서 YWCA 僞裝結婚式事件을 내가 주도한 것으로 알아가지고 나를 主謀者로 알아서 그때 내가 逮捕된 것을 搜查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吳景濤委員 예. 西水庫 保安司 搜查室에 잡혀가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예. 그때입니다.

○吳景濤委員 證人은 어떠한 내용으로서 調査를 받았습니까?

○證人 金相賢 내용은 아까 그와 비슷한 내용을 調査를 받았지요.

○吳景濤委員 그 調査를 받은 後遺症으로서 눈수술도 받았고 지금은 한쪽 다리에 마비증상도 있고 또한 어깨에 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證人 金相賢 예. 사실입니다.

○吳景濤委員 搜查過程에서 戒嚴司의 高位當局

者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YWCA事件으로 해 가지고 그당시 搜查받으면서 全斗煥 保安司令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全斗煥 씨가 그때 무슨 말씀을 하던가요.

○**證人 金相賢** 좀 이것은 장소는 제가 수사 받는 자리이고 그때는 제가 좀 혹독히 당해 가지고 제가 걷고 다니지 못해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해 가지고 그런데 그당시 搜查局長이 李鶴樺大領이셨는데 제가 무혐의라고 알고 제가 수사해 보니까 尹潽善씨만나서 오히려 반대한 強硬鬭爭을 반대한 내용인 것을 그당시 白基玩先生이나 朴鍾泰先生 楊淳植先生 그의 많은 사람들을 해 보니까 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대단히 미안하다고 해 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해서 保安司令官께서 나를 한 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다고 해서 제가 저녁 한 9時20分인가 넘어서 만났습니다.

○**吳景義委員** 예 그러면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證人 金相賢** 保安司令官을 만났을 때 제가 얘기를 한 것을 한두마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吳景義委員** 예 그렇게...

○**證人 金相賢** 그때 만났는데 저도 참 출세 후에 처음으로 높은 분 만나고 그래서 상당히 그랬는데 얘기를 하면서 잠바를 입고 오셨더군요. 오서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나보고 참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자세한 것을 내가 搜查局長인 李局長한테 들었는데 참 고생 많이해서 여러가지로 미안하다. 정중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는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는 데 국난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타개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감작스럽게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오질래 저도 생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내가 러시아와 회합의 속담에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악마하고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다리를 악마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자기끼리만 간다고 그러면 이 다리가 붕괴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거

예요. 그러나 악마하고 손을 잡으면 모든 사람이 평화의 땅에 희망의 땅에 번영의 땅에 갈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아요.

정말 여기에서 과거 政治的으로 대립된 사람끼리 대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풀어야 하는데 참 金大中先生이나 金泳三先生이나 그외에 많은 政界 各界指導者들과 元老諮問會議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朴正熙씨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정말 民主化는 빨리 조기에 실시하는것 이것이 바로 국난을 타개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옆에 있던 李鶴樺씨가 악마가 누굽니까 그렇디다. 그래서 내가 악마야 우리가 보기에는 崔圭夏大統領 金鍾泌씨 그다음에 全斗煥司令官 이런 사람들 우리는 악마라고 그리고 그쪽에서 붙어는 金大中先生 金泳三先生 나같은 사람은 악마새끼 정도로 볼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대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의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李承晚博士의 불행의 의미를 깨닫고 4.19의 그 敎訓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朴正熙大統領의 그 불행을 敎訓 삼아가지고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발전시키면 바로 그것은 대화의 길이고 서로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가는 그것이 지금은 최상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全斗煥司令官을 보니까 그분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주로 愛國心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는 오늘 죽어도 자기는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꼭하고 주고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吳景義委員**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랜 시간을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싶으면 얘기하시지요.

○**證人 金相賢** 제가 한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모든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 결과에 대해서 敎訓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신저」가 쓴 행복의 外交戰略이라는 책을 보면 그 가운데 이런 귀절이 있어 제가 참 敎訓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歷史의 敎訓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도전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歷史의 敎訓이다.

아주 저는 그것을 굉장히 내가 깊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光州에서 희생 당한 정말 영령들의 명복을 받고 또 부상당하고 또 그 遺族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가 民主化를 승화시키고 발전시킬려고 하면 오늘의 이 나라의 與野指導者들이 또 各界의 指導者들이 지난날 불행한 歷史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참 조화와 화해의 그런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두번 다시 光州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 땅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심정이옵시다.

○吳景義委員 감사합니다. 本委員의 訊問을 마칩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玉滿鎬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玉滿鎬委員 新民主共和黨의 玉滿鎬委員입니다.

방금 吳委員께서 본인이 준비한 사항과 대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마디만 간추려서 質問하겠습니다.

證人은 平和民主黨의 金大中總裁와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證人 金相賢 제가 金大中總裁와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19살인가 20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삼십오년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玉滿鎬委員 證人이 所長으로 있었던 당시 韓國政治文化研究所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발족되었으며 무슨 일을 주로 하였습니까?

○證人 金相賢 韓國政治文化研究所는 그러니까 1979年度 같습니다. 79年度에 조직을 했고 제가 政治規制를 당해가지고 政治活動을 못하기 때문에 또 政黨活動도 못하기 때문에 과거 제가 政治生活을 하면서 명소 반성하고 깨닫고하는 것을 韓國政治文化研究所를 만드는 데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韓國政治文化研究所는 韓國政治人들에 대해서 또 일례를 들면 韓國政治人들의 젊은 사람의 教育場으로 만들겠다 政治人들이 가져야 할 道德性의 문제라든가 責任 倫理라든가 未來指向的인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문제는 어떤 모든 사물을 합리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의 精神

으로 해가지고 韓國의 軍事政治文化에서 우리가 탈피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民主政治文化를 창조하는 하나의 教育場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玉滿鎬委員 방금 證人께서는 鄭東年씨를 만난 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證人이 金大中總裁로부터 돈 500萬원을 받아서 鄭東年씨에게 전했다는 사실도 물론 없게 된다는 말이지요?

○證人 金相賢 예. 그렇습니다.

○玉滿鎬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警察에서는 발표를 했을까요?

○證人 金相賢 그러니까 鄭東年證人이 또 진술할 것이고 어제 金大中總裁께서도 진술하고 오늘 제가 진술했습시다마는 이런 공포분위기 拷問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진술한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각본을 만들어서 이 光州事態는 金大中先生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각본을 짜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가지 立證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밤도 깊고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造作된 脚本에 의한 소위 이 나라 野黨의 指導者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陰謀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玉滿鎬委員 結論적으로 證人은 당시 戒嚴司가 발표한 內亂陰謀罪 사실은 전혀 조작된 脚本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證人 金相賢 예. 어제 新聞을 보니까 金大中先生이 99% 조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표현이 잘못 되었고 100% 그것은 조작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玉滿鎬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證人은 이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이같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法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전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玉滿鎬委員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그런데 제가 6·29宣言 후 今年인가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金大中內亂陰謀 사건이 연루되었던 24명의 그분들이 한번 저희들이 모이자 해서 어디 불고기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辯護士도 계시고 그러는데 누가 提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再審請求를 내자 이렇게 24명이 해가지고 저도 거기다가 도장을... 署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再審請求를 내는데 저도 署名을 했습니다.

○玉滿鶴委員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상...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民正黨의 權海玉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權海玉委員 民主正義黨所屬 權海玉委員입니다.

證人께서는 統一民主黨의 副總裁로 계시면서 이 나라 民主主義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歷史的인 光州特委 聽聞會에 밤늦게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本委員이 質問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선 本訊問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물겠습니다.

證人께서는 民推協共同議長署理를 역임한 바가 있지요?

○證人 金相賢 예. 그렇습니다.

○權海玉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임하셨습니다?

○證人 金相賢 그러니까 1985년부터 金大中先生이 귀국하신 뒤... 選舉때 들어 오셨으니까 1985年 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5年度 아마 5·6月 들어 오셨가지고 얼마 있다가 金大中先生이 議長으로 들어오시고 제가 副議長으로...

○權海玉委員 예, 좋습니다. 뭐 1984年 6月부터 1985年 8월까지 아마 역임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굳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證人께서 統一民主黨이지요? 統一民主黨의 副總裁로 계시면서 옛날에는 거의 다 金大中總裁하고 政治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결별했다는 소식도 듣고 있

어서 全國民이 상당히 일부분 사람들이 그 궁극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별을 하셨는지요?

政治路線이 달라서 결별을 하셨는지 아니면 個人感情이 있어서 결별을 하셨는지 한번 答辯을 해주십시오.

○證人 金相賢 그런데 존경하고 명예스러운 우리 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표현을 달리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결별이라는 말은 좀 허울리지 않는 말 같고요 지금 그 표현을 우리 權委員님께서 결별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것 같습니다. 質問內容에 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예요.

○權海玉委員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證人 金相賢 金大中先生과... 아까 어떤 委員께서 말씀한대로 지금 35年인가 36年間 人間關係로 해 가지고 政治生活도 또 金大中先生의 문하에서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金大中先生과 지금 현재 政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이지요. 작년입니까? 大統領選舉가 ...

○權海玉委員 작년이지요.

○證人 金相賢 작년 大統領選舉전에 소위 말해서 兩金氏라는 두 분이 大統領候補를 합의 해서 單一化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競選이라고 와중에 있을 때 제가 87年度 7月9日 16年만에 1次 제가 赦免復權이 되었습니다.

○權海玉委員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證人 金相賢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月9日 赦免復權이 되어가지고 9月23日 제가 統一民主黨 入黨을 하면서 記者會見으로 國民에게 약속할 때 大統領候補를 合意 單一化하겠다는 약속을 두 金先生은 지켜야 한다. 만약에 두 金先生이 合意 單一化를 만약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黨內 競選을 해서 大統領候補를 單一化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結論的으로 불행하게도 黨內競選도 되지 않고 합의도 안되어 가지고 金大中先生이 脫黨을 할 때 저는 그 당시 統一民主黨에 入黨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여러 가지 地域的인 환경으로 보면 제가 湖南出身이기 때문에 또 제

가 존경하는 金大中先生이기 때문에 平民黨에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政治人이기 때문에 國民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競選을 끝까지 주장한 民主黨에 제가 남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마침 말씀드리지만 金大中先生께서 그 당시에 만약에 黨內 競選에 응했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金大中先生을 大統領候補로 지명되게끔 아마 최선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政治人이기 때문에 國民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또 일관된 政治路線을 가져야 되겠다 또 地域的인 감정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내가 湖南사람으로서 나 나름대로 내 신념과 결의를 가지고 내 湖南의 名譽를 또 내 나름대로 지킨다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순간적으로 政治路線을 달리하고 있지만 政治하는 것이야 언제나 또 흩어졌다가 다시 또 합하게 되고...

○權海玉委員 좋습니다. 뭐 구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個人 人格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기 안하셨습니다.

그러면 本訊問에 들어가겠습니다.

證人께서는 조금 전에 同僚委員께서 質問하신 바 있는데 鄭東年이라는 사람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정말 모르십니까?

간단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證人 金相賢 鄭東年 말씀이지요?

監獄에서 나와서 제가 확인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權海玉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겠습니다.

證人께서는 1980年 5月5日和 5月8日 兩日間に 걸쳐서 鄭東年을 만나서 金大中總裁에게 人事를 시키고 鄭東年의 요구에 따라 1次 300萬원과 2次 200萬원을 합해서 500萬원을 받아 鄭東年에게 전달하고 學生示威와 光州市民 厥起運動에 사용하라고 돈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金相賢 전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같이 제가 法廷에서도...

○權海玉委員 없지요. 또 물겠습니다. 證人께서는 1980年5月5日 18時頃 韓國政治文化研究所 事務室에서 鄭東年의 방문을 받고 時局談을 하던 중 全南大도 他大學 못지않게 學內的

성토를 잘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서울대와 같이 政治問題化로 전환될 것이다 이 기회에 여러 大學과 연계하여 光州地方에서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하여 投石 放火등 폭력적 방법으로 경찰과 流血事態를 유발시키게 되면 高校生과 市民이 호응하여 民衆봉기로 발전될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相賢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까마는 그 당시의 상황은 金大中先生이 또 내 자신이 어떻게든지 崔圭夏 政權을 강화시켜 가지고 政局을 안정시켜서 빨리 政治日程이 밝혀져 가지고 民主化의 방향으로 나가는 입장인데 그런 폭력으로 民衆蜂起가 되고 그런 것은 鄭東年이 아니라 내 親동생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 당시 時局觀의 입장에서 그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설령 鄭東年 이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鄭東年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한 일이 만의 0.1%가 없습니다.

○權海玉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子正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잠깐 次順을 바꾸고 다시 하기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4黨幹事들이 합의한 바 있어 證人의 양해에 의하여 20日에도 繼續해서 證人訊問과 答辯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以上으로서 오늘의 會議를 마치고 9次會議를 開議할까 합니다.

먼저 散會를 宣布합니다.

(24時 散會)

○出席委員

| | | |
|-------|-------|-------|
| 文 東 煥 | 權 海 玉 | 金 吉 弘 |
| 朴 燾 太 | 辛 卿 權 | 沈 明 輔 |
| 安 榮 基 | 李 光 魯 | 李 肯 珪 |
| 李 道 先 | 李 敏 燮 | 鄭 東 鎭 |
| 鄭 昌 和 | 金 泳 鎮 | 辛 基 夏 |
| 李 海 瓊 | 趙 贊 衡 | 趙 洪 奎 |
| 崔 鳳 九 | 金 光 一 | 朴 泰 權 |
| 吳 景 義 | 李 仁 濟 | 張 石 和 |
| 金 文 元 | 金 仁 坤 | 玉 滿 鎭 |
| 朴 燦 鍾 | | |

○委員아닌出席議員

| | | | | | | | | |
|---|---|---|---|---|---|---|---|---|
| 崔 | 何 | 佑 | 金 | 鎔 | 采 | 金 | 元 | 基 |
| 金 | 潤 | 煥 | 李 | 大 | 輝 | 朴 | 浚 | 圭 |
| 李 | 東 | 鎮 | 鄭 | | 雄 | 鄭 | 祥 | 容 |
| 許 | 京 | 萬 | 金 | 令 | 培 | 慎 | 順 | 範 |
| 朴 | 英 | 淑 | 趙 | 津 | 昇 | 李 | 喆 | 鎔 |
| 崔 | 昌 | 潤 | 申 | 相 | 式 | 張 | 慶 | 宇 |
| 成 | 鍾 | 漢 | 趙 | 榮 | 藏 | 金 | 塔 | 泰 |
| 李 | 承 | 潤 | | | | | | |

○出席專門委員及立法審議官

| | | | | | | |
|---|---|---|---|---|---|---|
| 專 | 門 | 委 | 員 | 陳 | 在 | 勳 |
| 立 | 法 | 審 | 議 | 官 | 金 | 永 |
| | | | | | | 善 |

○出席證人

周永福 金相賢